

栗谷先生 自警別曲

(율곡선생 자경별곡)

신 영 산 풀이

◎ 序曲(서곡)	1
◎ 第一曲 奉親(봉친)	5
◎ 第二曲 君臣(군신)	8
◎ 第三曲 兄弟(형제)	9
◎ 第四曲 男女(남녀)	11
◎ 第五曲 敬老(경로)	13
◎ 第六曲 師事(사사)	14
◎ 第七曲 交友(교우)	16
◎ 第八曲 睦族(목족)	19
◎ 第九曲 喪葬(상장)	21
◎ 第十曲 祭祀(제사)	22
◎ 第十一曲 婚禮(혼례)	23
◎ 第十二曲 婚家儀式(혼가의식)	25
◎ 第十三曲 接賓(접빈)	26
◎ 第十四曲 交隣(교린)	27
◎ 第一節 寓接(우접)	28
◎ 第二節 愼口(신구)	29
◎ 第三節 居家(거가)	31
◎ 第四節 室慾(질욕)	33
◎ 第五節 讀書(독서)	35

◎ 序曲(서곡)

痛憤(통분)하다 痛憤(통분)하다
不學無識(불학무식) 痛憤(통분)하다
天性(천성)으로 삼긴 心性(심성)
物慾(물욕)으로 變(변)탄 말가
離婁(이루)¹⁾가치 발근 눈의
보는 거시 錢穀(전곡)이오
師曠(사광)²⁾가치 총(聰)흔 귀의
듣는 거시 酒色(주색)이오
公輸(공수)³⁾가치 巧(교)흔 손의
棋博沽酒(기박고주) 汨沒(골몰)하고
夸父(과부)⁴⁾가치 걷는 발은
財利上(재리상)의 奔走(분주)하다
興戎出好(흥융출호) 헉난 입의
言語操心(언어조심) 아니하며
惰基四肢(타기사지) 이 스롭아
不顧父母(불고부모) 大不孝(대불효)라
千金(천금)가치 貴(귀)흔 몸이
百年(백년) 못 살 人生(인생)이라
生前(생전)의 그러하고
死後(사후)의 그 뉘 알리
사람마다 이 흔 몸이
父母遺體(부모유체) 뉘 아닌가
文章功名(문장공명) 富貴(부귀)해야
父母榮華(부모영화) 못 뵈거든
豪俠放蕩(호협방탕) 亂雜(난잡)해야
父母貽憂(부모이우) 무삼 일고
切痛(절통)하다 切痛(절통)하다
싱각하면 切痛(절통)하다
世上天下(세상천하) 萬物中(만물중)의
사람이 貴(귀)탄 말슴

원통하고 분하도다,
못 배워 무식함이 원통하고 분하도다.
천성으로 생긴 마음씨도
물욕으로 변하는가.
이루같이 밝은 눈에
보는 것은 술과 곡식
사광같이 밝은 귀에
듣는 것이 주색이라.
공수같이 능한 손에
장기바둑 술 내기로 골몰하고
과부같이 걷는 발은
이익 쫓기 분주하다.
쉽게 화를 내고 금방 좋아하는 입이
말조심 아니하며
사지 육신 게으른 이 사람아.
어버이를 돌보지 아니하는 큰 불효하나.
천금같이 귀한 몸이라도
백 년 못 살 인생이라.
생전에 그러하면
죽은 후에 그 뉘 알리.
사람마다 이 한 몸을
어버이께 물려받지 아니한 이 그 뉘인가.
문장으로 이름 날려 부귀해도
어버이께 영화를 못 드리고
호방하고 방탕하기 난잡하여
어버이께 근심되니 이 무슨 일이런고.
분하고도 분하도다.
생각하면 분하도다.
세상 천하 만물 중에
사람이 귀하단 말씀을

1) 중국의 황제 시대에 살았다는, 눈이 비상하게 밝은 전설상의 인물.

2) 중국 진(晉)나라 때의 악사(樂師)로 음률을 잘 분간할 수 있었다 함.

3) 공수반(公輸班). 중국 노(魯)나라의 장인(匠人)으로 솜씨가 교묘했다고 함.

4) 중국의 상고(上古) 때 사람. 달리기를 잘했는데, 해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목이 말라 죽었다고 함.

보아서도 알거신가
드러서 斟酌(짐작) 할가
天地造化(천지조화) 化生(화생) 할 제
賤(천)흔 거시 禽獸(금수)로다
假令(가령) 닐러 禽獸(금수)되면
못될 것도 無數(무수)하다
麒麟(기린)¹⁾이 貴(귀)컨마는
닷는 짐승 毛族(모족)이요
鳳凰(봉황)이 祥瑞(상서)라도
나난 식이 羽族(우족)이다
冀北(기북)²⁾에 貴(귀)흔 거시
千里馬(천리마)³⁾를 좇타 할가
遼東貴物(요동귀물) 자랑 마소
白頭豕(백두시)도 賤(천)하다
寧爲鷄口(영위계구) ㅎ잔 말이
그 아니 鄙言(비언)인가
一獸走(일수주) 百獸驚(백수경)과
鳥之將死(오지장사) 基鳴哀(기명애)는
날고 닳고 그 뿐이라
知覺(지각) 이서 그리는가
貴(귀)하다 貴(귀)하다
오직 사람 貴(귀)하다
元亨利貞(원형이정)⁴⁾ 順理(순리) ㅎ고
仁義禮智(인의예지) 稟性(품성) ㅎ야
三綱五倫(삼강오륜)⁵⁾ 우리 人間(인간)
萬善百行(만선백행) 이 世上(세상)의
貴(귀)흔 스름 되야 나서
飽食煖衣(포식난의) 舉動(거동)보소
ㅎ난 거시 自行自止(자행자지)
아난 거시 如醉如狂(여취여광)

보아서야 알 것인가.
들어서야 짐작할까.
천지조화 생겨날 제
천한 것이 짐승이로다.
가령 일러 짐승 되면
못될 것도 무수하다.
기린이 귀하여도
달리는 털 달린 족속이요,
봉황이 상서로워도
나는 새에 깃 달린 족속이라.
기북에서 귀하다는
천리마가 좋다 할까.
요동 땅의 귀한 동물이라 자랑 마소.
흰 머리의 돼지도 천하도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되겠노라 하는 말이
그 아니 천하던가.
한 짐승 달아나니 모든 짐승 놀랜 일과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 애처로움은
날아가고 달리기에 그칠 뿐이라.
알아서 깨닫기에 그러한가.
귀하도다, 귀하도다.
오직 사람 귀하도다.
원형이정으로 이치에 순종하고
인의예지 타고난 성품으로
삼강오륜 우리 인간
만 가지 착한 일과 온갖 행실로 이 세상에
귀한 사람 되었는데,
배부르고 따듯이 입겠다는 거동 보소.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다 말다 해 버리고
아는 것은 취한 듯이 미친 듯이 해 버리니

1)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올 전조로 나타난다는 상상의 상서로운 동물.

2) 중국의 기주(冀州) 북쪽 땅

3) 하루에 천리를 달릴만한 썩 좋은 말.

4) 《주역》에 나오는 천도(天道)의 네 가지 원리로 원(元)은 봄으로 만물의 시초, 형(亨)은 여름으로 만물의 성장, 이(利)는 가을로 만물의 완성, 정(貞)은 겨울로 만물의 수확을 뜻함.

5) 유교(儒教) 도덕의 기본이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함.

良知良能(양지양능) 本然心乙(본연심을)
自暴自棄(자포자기) ㅎ여 갈 제
近於禽獸(근어금수) 姑舍(고사) ㅎ고
牛馬襟裾(우마금거) 네 아닌가
스름되야 胎生(태생) ㅎ니
못날 디도 ㅎ고 만타
北胡地(북호지)의 生長(생장) ㅎ면
匈奴(흉노)¹⁾를 못 면 ㅎ며
西藩(서번)²⁾의 生長(생장) ㅎ면
犬戎(견융)³⁾이 아조 쉽고
南蠻國(남만국)의 生長(생장) ㅎ면
馱舌荒服(격설황복)⁴⁾ 뉘번 ㅎ드
조홀시고 우리 東國(동국)
文明(문명) ㅎ다 우리 東國(동국)
堯之日月(요지일월) 舜之乾坤(순지건국)의
檀君故國(단군고국) 箕子州(기자주)라
文冠制度(의관제도) 彬彬(빈빈) ㅎ고
禮樂文物(예악문물) 郁郁(옥옥) ㅎ다
飛禽走獸(비금주수) 아니 되고
天賦地靈(천부지령) 스름되야
南蠻北狄(남만북적) 아니 되고
朝鮮聖世(조선성세) 生長(생장) ㅎ니
四都(사도) 八路(팔로)⁵⁾ 널운 들의
山明水麗(산명수려) 萬世基(만세기)라
家給人足(가급인족) 太平界(태평계)의
國泰民安(국태민안) 조홀시고
老而不學(노이불학) 저 老人(노인)은
擊壤歌(격양가)⁶⁾를 몰나든가
童子何知(동자하지) 저 아히는
康衢謠(강구요)⁷⁾ 뜻을 알가

절로 알고 절로 행하는 본연의 마음으로
스스로 버려두고 스스로 포기하니
날짐승 들짐승에 가까움은 고사하고
소와 말이 옷을 입고 처신하니 너 아닌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못난 데도 많고 많다.
북쪽의 오랑캐 땅에서 자라나면
흉노를 못 면하며
서쪽의 변방에서 자라나면
견융 되기 아주 쉽고
남쪽의 미개한 나라에서 자라나면
때까지쳐침 지껄이는 말을 한다.
좋을시고 우리 동방,
문명이 밝았구나, 우리 동방.
요임금의 세월이며 순임금의 땅과 하늘로
단군의 나라이고, 기자의 고을이라.
의복 벼슬 훌륭하고
예악과 문물이 번성하였도다.
날짐승 길짐승 아니 되고,
하늘이 주시고 땅 기운으로 사람 되어
남쪽 북쪽 오랑캐가 아니 되고
성군이 다스리는 조선에서 자라나니
사도와 팔도 땅의 넓은 들에
산수 경치 아름다운 만세의 터전이라.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한 태평 세계에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한데
늙도록 배우지 못한 저 늙은이는
격양가를 몰랐던가.
무엇을 알 것인가, 저 아이는
강구요의 뜻을 알까.

1) 기원전 3-1세기 사이에 몽골 지방에서 활약한 유목 민족.

2) 지금의 티벳 지역.

3) 중국 고대 섬서성(陝西省)에 살던 민족.

4) 오랑캐가 지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5) 네 도읍지와 여덟 개의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곳. '사도'는 수원부(水原府)·광주부(廣州府)·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

6)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7) 옛날 중국에서 어린이들이 변화한 거리에서 불렀다는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노래.

우리 東國(동국) 人民(인민)되야
無識(무식)하고 썰 덕 업다
니바 우리 同門生(동문생)아
스름될 날 議論(의논)하식
스름이 스름될 날
學問(학문) 밋과 다시 업너
萬古大聖(만고대성) 孔夫子(공부자)는
韋編三絕(위편삼절)¹⁾ 하시도다
八年治水(팔년치수) 夏禹氏(하우씨)²⁾는
寸陰(촌음)을 앓겨시니
우리 가탄 新學小生(신학소생)
虛送歲月(허송세월) 하잔 말가

우리나라 동방에서 백성 되어
무식하면 쓸데없다.
이보시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아,
사람 될 일 의논하세.
사람이 사람 될 일
학문밖에 다시 없네.
만고의 큰 성인인 공자께서도
책 헤지듯 열심히 공부를 하셨구나.
팔 년 홍수 다스리던 하우씨도
시간을 아꼈으니
배움이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월을 허무하게 보낼 것인가.

1)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2) 팔 년이나 계속된 홍수로 범람한 황하를 다스려서 임금이 된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

◎ 第一曲 奉親(봉친)

爲先第一(우선제일) 먼저 흘 닐
至誠(지성)으로 奉親(봉친) ㅎ식
大舜(대순)¹⁾으로 法乙(법을) 삼고
曾子(증자)²⁾로 스승 ㅎ여
養口體(양구체)³⁾로 ㅎ려니와
心志乙(심지을) 順(순)히 ㅎ식
痛則致憂(통칙치우) 不離側(불이측)은
子息道理(자식도리) 예사로다
昏定晨省(혼정신성) 못흔 後(후)의
日用三牲(일용삼생)⁴⁾ 虛事(허사)로다
人間孝子(인간효자) 되올 일이
誠之一字(성지일자) 關重(관중) ㅎ다
貴賤(귀천)으로 흘 거시면
貧富(빈부)로 議論(의논) ㅎ가
郭巨(곽거)⁵⁾ 가탄 至窮人(지궁인)은
萬古孝子(만고효자) 아니던가
石崇(석송)⁶⁾ 가탄 大富者(대부자)도
奉親(봉친) ㅎ단 닐흠 업다
夫子門人(부자문인) 仲子路(중자로)는
百里負米(백리부미) ㅎ다 ㅎ니
大聖人(대성인)의 弟子(제자)되여
耳聞目睹(이문목도) 聖訓(성훈)이라
듯고도 알거니와 보와도 可知(가지)로다
東夷國(동이국)의 大連小連(대련소련)⁷⁾

우선 첫 번째로 먼저 할 일
지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하세.
순임금으로 법을 삼고
증자로 스승 삼아
어버이도 봉양 하려니와
품은 뜻도 순하게 하세.
병환 들면 걱정되어 곁 떠나지 아니함은
자식의 도리로 예사로다.
아침저녁 안부 물어 살피지 못한 후에
가신 후에 정성 들여 제사한들 허사로다.
세상에서 효자가 되올 일은
성(誠) 한 글자로 모실 일이 중요하다.
귀하다고 할 것이며 천하다고 못하겠나.
가난하다 넉넉하다 따져가며 의논할까.
곽거 같이 지극히 궁했던 이도
만고의 효자가 아니었던가.
석송 같은 큰 부자도
효자들의 이름에는 없구나.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는
백 리 밖에서 쌀을 지고 왔다 하니
공자의 제자가 되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가르침을 받았으니
듣고도 알거니와 보아도 가히 알리라.
동이국의 대련 소련 형제는

1) 순임금의 부친은 순의 모친이 사망한 후 계비를 들여 아들 상(象)을 낳은 후에, 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순은 부모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잘 피하면서 효도를 다하였다 함.

2) 증자는 부친에게 술과 고기를 올리고 상을 물릴 때에 남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줄까요' 하여 부친의 뜻을 물었다고 함.

3) 몸을 살찌움.

4) 제물로 쓰이는 세 가지 짐승으로 소와 양, 돼지.

5) 중국 후한 때에 효자. 아내와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손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자 어머니 몫이 줄어든다고 하여 땅을 파고 아이를 묻어버리려 하였지만, 그때 돌 뚜껑이 나와 열어보니 황금 한 술이 담겨 있었다고 함.

6) 중국 진나라 때의 큰 부자. 촛불로 밥을 지었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드는 등 낭비가 심하였다고 함.

7) 소련 대련 형제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데 3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석 달을 옷을 벗은 않았으며, 1년 동안 슬퍼하였고, 3년 동안 걱정하였다고 함.

三年不怠(삼년불태) 헛다 헛니
 胡羯國(호갈국)¹⁾의 臣民(신민)되면
 敎而學之(교이학지) 胡風(호풍)이라
 뉘라서 가르치며 어딴서 비완논고
 感天至誠(감천지성) 王休徵(왕휴진)²⁾
 닐흠 잇는 孝子(효자)로다
 얼음 속의 잉魚 썬고 나난 식도 房의 든다
 出天之孝(출천지효) 董邵南(등소남)³⁾은
 짝이 업슨 孝子(효자)로다
 물의 드러 고기 잡고
 피의 올라 나무하며
 들의 나셔 밭을 갈고
 도라와서 글을 너넉
 입의 마즌 飲食(음식)이며
 몸에 마는 衣服等物(의복등물)
 뜻과 마음 가치 헛니
 父母(부모) 오직 便(편)헛신가
 이런 故(고)로 그 집 안의
 개와 닭이 感化(감화)헛다
 넷 스름의 헛던디로
 後生(후생)은 비와 헛식
 具慶之下(구경지하) 子息(자식)되야
 衣不純素(의불순소) 헛여 님고
 孤哀子(고애자) 되엇거든
 服不純采(복불순채) 흘 거시라
 居家(거가)의 헛기 원 일
 아버지 불너시든
 입의 밥을 피아트며
 손윗 거슬 더져 두고
 對答(대답)만 幸(행)히 말고
 밧비밧비 달라가서

삼 년 동안 게으름이 없었는데,
 오랑캐의 백성 되면
 가르치고 배움이 오랑캐 풍속이라.
 뉘라서 가르치며 어디에서 배웠는고.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왕휴진은
 이름있는 효자로다.
 얼음 속에 잉어 뛰고 나는 새도 방에 든다.
 하늘이 내린 등소남은
 짝이 없는 효자로다.
 물에 들어 고기 잡고
 산에 올라 나무하며
 들에 나가서는 밭을 갈고
 돌아와서 글을 읽네.
 입에 맞는 음식이며
 몸에 맞는 의복 등등
 뜻과 마음 같이 하니
 부모 오직 편하신가.
 이러하니 그 집 안의
 개와 닭도 감화되었구나.
 옛사람이 하던 대로
 후세 사람 배워 하세.
 아버이 살아 계신 복된 집의 자식 되어
 옷은 너무 소박하게 입지 않고
 아버이가 모두 돌아가셨거든
 색 있는 옷 입지 말 것이라.
 집안에서 하기 쉬운 일 있으니
 아버이 부르시면
 입에서 씹던 밥도 배알으며
 손에 든 것 던져두고
 그저 대답만 하지 말고
 바빠바빠 달려가서

1) 흉노국.

2) 중국 진(晉) 때의 효자였던 왕상(王祥). 악독했던 계모가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얼음을 깨고 강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 때 얼음이 녹으면서 잉어 두 마리가 뛰어나와 왕상에게 안겼다고 함.

3) 중국 당나라 때 사람으로 학문이 높고 행동거지가 밝았으며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다고 함. 어느 날 등소남이 나무하러 가자 어미 개가 따라나섰는데, 등소남이 기르던 암탉이 강아지를 대신 품어 주었다고 함. 이를 본 사람들이 “등소남의 바른 행실을 자식이 본받더니, 이제는 동물까지도 본받는 다.”하고 칭송하였다 함.

무삼 닐을 시켜시든
盡心竭力(진심갈력) 服從(복종)하라
五刑之屬(오형지속)¹⁾ 三千中(삼천중)의
罪莫大於(죄막대어) 不孝(불효)로다
反哺(반포)²⁾한 겨 가마귀
거문식 너 아니냐
世上(세상) 스름 드러 보소
가마기도 反哺(반포)하니
瞻烏爰知(참오원지) 反哺(반포)하니
可以人而(가이인)이 不如烏(불여오)아
無窮(무궁)하다 人子道理(인자도리)
어이 다 記錄(기록)하니

무슨 일 시키시면
진심으로 힘을 다해 복종하라.
오형을 받는 삼천 죄 중
불효보다 큰 죄 없다.
아버이 은혜 갚는 저 까마귀
검은 새 너 아니냐.
세상 사람 들어보소.
까마귀도 효도하네.
까마귀를 쳐다보고 부모님의 은혜 아니
사람 되어 까마귀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끝이 없구나, 사람 도리
어이 다 기록하리.

1) 오형(五刑). 옛날 범죄자를 처벌하던 다섯 가지 형벌, 곧 이마에 자자(刺字)하는 것, 코를 베는 것, 다리를 자르는 것, 거세하는 것, 사형시키는 것.

2)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 第二曲 君臣(군신)

아라 두식 百姓(백성)덜라
君臣有義(군신유의) 아라두식
天地(천지) 가탄 聖主上(성주상)은
日月(일월) 가치 照臨(조림)하샤
草木(초목)가탄 元元蒼生(원원창생)
雨露恩澤(우로운택) 感育(감육)하야
赤子(적자)가치 사랑하샤
爲民父母(위민부모) 하시도다
孝可移於(효가이어) 事君(사군)이라
臣民道理(신민도리) 하기 쉽다
노지말고 글을 비와
朝令綸音(조령윤음)¹⁾ 외와 두고
부지러니 바칠 갈라
賦稅徭役(부세요역)²⁾ 趁時(진시)하고
朝家處分(조가처분) 是非(시비)말고
官家善惡(관가선악) 言論(언론)마식
君義臣忠(군의신충) 大綱常(대강상)은
今文古文(금문고문) 昭詳(소상)하다

알아두세 백성들아,
임금과 신하 사이 의리 있음을 알아 두세.
천지 같은 성스러운 우리 임금
해와 달처럼 밝게 내리비취
초목 같은 세상의 모든 백성
비와 이슬 은덕으로 감화하고 기르시니
갓난아이 같이 사랑하사
백성 위한 아버지가 되시도다.
효도를 옮겨가면 임금을 섬김이라.
백성 도리 하기 쉽다.
놀지 말고 글을 배워
임금 말씀 외워 두고
부지런히 받을 갈아
세금과 요역은 진작에 짬을 내고
조정에서 하는 일에 시비 말고
관리들의 선행 악행 따지지 마세.
임금은 의리 있고 신하는 충성해야 함은
옛글과 지금 글에 소상히 나와 있다.

1) 조정에서 내리는 명령과 임금의 말씀.

2) '요역'은 나라에서 정남(丁男)에게 구실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

◎ 第三曲 兄弟(형제)

同父母(동부모) 삼긴 몸이
兄弟友愛(형제우애) 힘써 보세
形容(형용)은 分體(분체)하나
血脈(혈맥)인즉 同氣(동기)로다
兄(형)의 몸이 飢渴(기갈)되면
아외 혼자 비부르며
아외 몸이 치위 갈 제
兄(형)이 혼자 닦을 것가
한 알 곡식 한 즈 비도
난화 먹고 난화 입식
行有餘力(행유여력) 誦詩(통시)하야
鶴鵠詩(척령시)¹⁾을 외아 두고
詠歌舞蹈(영가무도) 湛樂(담락)하야
簾(지)²⁾도 불며 熏(훈)³⁾도 부식
兄友弟恭(형우제공) 조홀시고
父母安寧(부모평안) 하시다다
여러 兄弟(형제) 一樹花(일수화)라
紫荊花(자형화)⁴⁾ 꼬시 피며
가지 가지 피는 香氣(향가)
날날마닥 春風(춘풍)이라
姜公兄弟(강공형제)⁵⁾ 有名(유명)하야
同衾同枕(동금동침) 보기 조타
溫公兄弟(온공형제)⁶⁾ 금즉하다
向寒向飢(향한향기) 듯기 조타
嚴父(엄부)가치 奉養(봉양)하고

한 부모에 태어난 몸들이니
형제 우애 힘써 보세.
모습은 나뉘었어도
핏줄은 동기로다.
형의 몸이 굶주리면
아우 혼자 배부르며
아우 몸이 추워갈 제
형이 혼자 입겠는가.
한 알 곡식 한 자 베도
나눠 먹고 나눠 입세.
일하고 행여 힘이 남으면 시를 읽어
척령시를 외워 두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화목하게 즐겨보아
지도 불고 훈도 부세.
형제 우애 깊었으니 좋을시고.
부모 평안 하시도다.
여러 형제 한 그루 나무에 핀 꽃이라.
박태기 나무에서 꽃이 피며
가지가지 피는 향기
날마다 봄바람이라.
강굉 형제 이름나니
한 베개에 한 이불에 보기 좋다.
온공 형제 대단하다.
추운지 배고픈지 늘 물으니 듣기 좋다.
엄한 부친처럼 키워주고

1) 《시경(詩經)》에 있는 편명. 할미새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므로 급한 일을 당하여 형제가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쓰임.

2) '지'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

3) '훈'은 흙으로 만든 나팔. 형은 '훈'을 불고, 아우는 '지'를 불어 서로 조화된 음률을 만든다는 것으로 형제가 서로 화합함을 비유함.

4) 형제가 극히 우애하여 재산을 나누지 않음을 이룸.

5) 강굉(姜肱). 후한 말의 사람으로 집안 대대로 명문 세족이었는데, 동생인 강중해, 강계강 등과 함께 효행으로 이름이 났으며, 두 동생과 한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우애가 깊었고, 장성해 각자 장가를 들어 서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 떨어질 수 없었다고 함.

6) 우애가 남달리 두터웠던 사마광은 거의 팔십 살이 된 형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처럼 하고, 형 백강은 아우 보살피기를 젓먹이 어린아이처럼 하여,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 서로 배고프지 않은지를 물었다고 함. 그리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서로 등을 어루만지며 옷이 얇지 않은지를 물었다고 함.

嬰兒(영아)가치 保護(보호)하니
넋 사람 흥던덕로
우리도 흥여 보식
착한 일은 난으 흥고
그른 일은 서로 마식

젓먹이처럼 보호하니
옛사람 하던 대로
우리도 하여 보세.
착한 일은 나눠하고
그른 일은 서로 마세.

◎ 第四曲 男女(남녀)

人事上(인사상)의 부디 할 일
男女有別(남녀유별) 발켜 보식
同姓異姓(동성이성) 族戚間(족척간)의
內外分間(내외분간) 至嚴(지엄)하다
하물며 남남 間(간)의
分別(분별)업시 居生(거생)할가
넋 글의 닐은 말씀
夫婦有別(부부유별) 닐러시니
二姓(이성)으로 말런 하니
萬福原果(만복원과) 生民始(생민시)라
乾坤(건곤)¹⁾으로 配匹(배필) 믹즈
陰陽(음양)으로 會合(회합)하니
言語上果(언어상과) 枕席間(침석간)의
褻狎(설압)하기 아조 쉽다
尊敬(존경)으로 專主(전주)하면
家道興隆(가도흥융) 可知(가지)로다
小禮大禮(소례대례) 그썩 禮(예)을
終身(종신)토록 잊지 말고
느나 드나 琴瑟(금슬)²⁾가치
夫和婦順(부화부순) 하여서라
人間萬事(인간만사) 닐닐마득
夫婦間(부부간)의 造端(조단)하니
父母安寧(부모안녕) 하시기와
兄弟和同(형제화동) 한 것파
一家親戚(일가친척) 먼 眷黨(권당)이
內庭(내정)으로 盛衰(성쇠)하니
冀野(기야)의 밋슬 가니
郤缺(극결)³⁾ 아니 農夫(농부)든가
饁彼南畝(엽피남무) 그 婦人(부인)을
大賓禮(대빈례)로 尊敬(존경)할 제

사람으로 부디 할 일
남녀 간에 구별해야 함을 밝혀 보세.
같은 성씨 다른 성씨 친척 간에
남녀 간에 분간할 일 지엄하다.
하물며 남남 간에
분별없이 살아갈까.
옛글에 이른 말씀
부부간에 구별 있음을 일렸으니
다른 두 성 서로 만나 마련하니
만복의 근원은 백성 낳은 시작함이라.
하늘과 땅의 인연으로 배필 맺어
음양으로 서로 만나 화합하니
주고받는 말이거나 잠자리에서
마구 하기 아주 쉽다.
존경으로 온전히 하게 되면
가족 도리 일으켜짐을 알리로다.
크고 작은 집안 의식 그때그때 예절을
한평생 잊지 말고
나가서나 들어오나 거문고나 비파같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순종하라.
인간 만사 모든 일마다
부부 사이에서 시작하네.
아버이를 평안하게 하는 것과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과
일가친척 먼 친척들과
안뜰에서 성하거나 쇠하게 되네.
기주 땅에서 밭을 갈던 사람
극결은 비록 농부였어도
남쪽의 밭두렁에 들밥 내가는 그 부인이
큰 손님의 예로 지아비를 존경하니

1) '건'은 남자를, '곤'은 여자를 상징함.

2) 거문고와 비파.

3) 중국 진(晉)나라의 대부(大夫). 기의 땅에서 밭을 갈 때 그 아내가 밥을 가지고 나왔는데, 서로 공경하여 대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였는데, 이를 구계(臼季)가 보고 진나라 문공에게 천거하여 대부로 삼았다고 함.

施措不惰(시조부타) 그 夫人(부인)은
雙手奉獻(쌍수봉헌) 禮貌(예모)보소
許允之妻(허윤지처) 院夫人(완부인)¹⁾은
얼굴이사 엇더턴지
士有百行(사유백행) 무러시니
婦有四德(부유사덕)²⁾ 可知(가지)로다
好色(호색)이요 不好德(불호덕)은
士君子(사군자)의 欠事(흠사)로다

일을 하고 게으름 없는 그 부인이
두 손 모아 예의 지키는 몸가짐 보소
허윤의 처 완부인은
얼굴이야 어떻든지
선비에게 백 가지 행실 있음을 알렸으니
부녀자의 네 덕을 알리로다.
외모만을 좋아하고 덕은 좋아하지 않으면
선비 된 군자의 흠이로다.

1) 중구 동진(東晉)시대의 명사 허윤(許允)의 아내. 허윤은 장가간 첫날 밤에 완씨의 용모에 놀라 신방을 뛰쳐 나왔지만 뒤에 그의 덕행을 알고 백년해로했다고 함.

2)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품성. 곧 마음씨, 말씨, 맵씨, 솜씨.

◎ 第五曲 敬老(경로)

스름되고 行身(행신)홀 일
얼운 兒孩(아해) 살펴 보소
靑春少年(청춘소년) 저 사람아
白髮老人(백발노인) 尊敬(존경)호식
邪寒盛暑(사한성서) 찬고 덥고
衣冠(의관)호고 되셔셔라
바다서 들일 적의
주시는 것 辭讓(사양) 마소
혼가지로 길을 갈 제
압페서 가지 말며
얼운 말삼 酬酌(수작)홀 제
다른 말 섞지 말고
물난 말삼 근치거든
掩掩(엄엄)호고 對答(대답)호며
씻난 신을 못 밟거든
쥐난 踰踰(옴옴) 건가
操心(조심)만타 侍生(시생)¹⁾더라
간 덕마닥 尊長(존장)이라
老人執白(노인집백) 少年黑(소년흑)은
바들 장기 말거실넉
일흠 아니 雜技(잡기) 던가
尊長(존장) 얼운 되셔 안져
平坐(평좌)호야 訓手(훈수)호여
爭道不恭(쟁도불공) 보기 슬타
長幼有序(장유유서) 至嚴(지엄)호니
五倫中(오륜중)의 第四(제사)로다

사람 되어 몸소 할 일
어른 아이 살펴보소.
청춘 소년 저 사람아
백발노인 존경하세.
겨울이던 여름이던 차거나 덥거나
의관을 정제하고 모시어라.
어른께서 주신 것을 받을 적에
주시는 것 사양 마소.
어른과 함께 길을 갈 제
앞에서 가지 말며
어른과 말씀을 나눌 제는
다른 말 섞지 말고
묻는 말씀 그치거든
입 가리고 대답하게.
신은 신을 못 밟는데
쥐고 있는 지팡이를 옴길 건가.
조심하라, 시생들아.
간 데마다 어른이라.
노인은 백을 쥐고 소년은 흑을 쥐니
바둑 장기 하지 말 것이네.
그 이름도 잡기가 아니던가.
웃어른을 모셔다가 앉게 하고
편안히 앉아 훈수하며
공경 없이 말 다투는 모습 보기 싫다.
장유유서 지엄하니
오륜 중에 네 번째로다.

1) 말하는 사람이 웃어른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第六曲 師事(사사)

이바 우리 門生(문생)¹⁾덜라
先生尊敬(선생존경) ㅎ여 보식
年齒(연치)로 닐을 짓가
身地(신지)도 보지 말소
나히샤 만고 적고
身地(신지)야 貴賤間(귀천간)의
博聞博識(박문박식) 先進(선진)이오
道學理學(도학이학)²⁾ 先覺(선각)이라
그 門下(문하)의 受業(수업) ㅎ니
이 아니 先生(선생)인가
山鷄野鷺(산계야목)³⁾ 가탄 兒孩(아해)
耳提面命(이제면명)⁴⁾ 解蒙(해몽) ㅎ야
ㅎ날천자 싸 地字乙(지자를)
음 식김을 분간 ㅎ며
先後畫乙(선후획을) 닐너 알가
손을 잡고 쓰어 주며
魚魯之辨(어로지변)⁵⁾ 鴈鴈字乙(안응자를)
몇 ㅎ만에 알아시며
詩書百家(시서백가)⁶⁾ 권권서와
凡百人事(범백인사) 가라칠 제
德澤(덕태)도 壯(장)홀시고
積功(적공)도 금즉 ㅎ다
모로난 일 못조오면
아난디로 訓戒(훈계) ㅎ야
子弟(자제)가치 引導(인도) ㅎ니
父母(부모)가치 尊敬(존경) ㅎ식
書冊(서책)을 넘지 말고
杖屨(장구)⁷⁾을 천동(遷動) 마소

이보시오, 우리네 문생들아.
스승님을 존경하여 보세.
나일로 따질 건가,
지위도 보지 마소.
나이야 많고 적고
지위야 높고 낮던
널리 듣고 널리 알면 앞서 나아감이요,
도리를 깨달으면 먼저 깨달음이라.
그 문하에서 수업하니
이 아니 스승인가.
산꿩이나 들오리 같은 아이들
친절하게 가르치어 어리석음 일깨워서
하늘 천(天)자 땅 지(地)자의
음 새김을 분간하며
앞뒤 획을 일러주어 알게 하네.
손을 잡고 끌어주며
어(魚)자와 노(魯)자 안(鴈)자와 응(鷹)자를
몇 해 만에 알았으며
시경 서경 백가서와 수많은 책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르치시니
그 덕택도 장하시고
쌓은 덕도 대단하다.
모르는 일 여쭙오면
아는 대로 훈계하여
자제 같이 인도하니
부모같이 존경하세.
서책을 넘어 다니지 말고
어른 신과 지팡이를 움직이지 마소.

1) 문하에서 함께 배우는 제자.

2) 유교에서 도덕에 관한 학문.

3) 성미가 거칠어 제 마음대로 하여 다잡을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한 말.

4) 남의 귀를 끌어당겨서 알아듣게 직접 가르침.

5) '魚'자와 '魯'자를 구별할 수 있음.

6) '시경(詩經)'은 중국 춘추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서경(書經)'은 중국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책. '백가서'는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학자들이 저술한 책.

切痛(절통)하다 世上人心(세상인심)
先生薄待(선생박대) 무삼 닐고
慇懃(은근)하신 情談(정담)듯고
門(문) 밋고 나 是非(시비)하며
靑出於藍(청출어람)¹⁾이라 하고
제 직조를 자랑하며
氷出於水(빙출어수)²⁾이라 하고
先生文章(선생문장) 疎待(소대)하니
그 先生(선생)의 글을 비와
立身揚名(입신양명) 하난 스름
居家(거가)의난 榮親(영친)이요
爲國(위국)의난 忠臣(충신)이라
그 일할 생각하면
君師父 一體(군사부일체)로다
스승 薄待(박대) 幸(행)혀 마소
孝子忠臣(효자충신) 根本(근본)이라
巫夫樂工(무부악공) 下賤人(하천인)도
先生弟子(선생제자) 잇서고나

사무치게 원통하다, 세상 인심.
스승 박대 무슨 일인가.
은근하게 다정한 말씀 듣고서고
문밖에 나가면 옳고 그름 따져가며
청출어람이라 으스대며
자기 재주 자랑하며
빙출어수라 자랑하며
스승의 글 소홀하게 대하니
그 스승께 글을 배워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사람
집에서는 어버이께 영광이요,
나라 위한 충신이라.
그 일을 생각하면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이라.
스승 박대 행여 마소.
효자와 충신이 근본이라.
무당이나 악공같이 천한 이도
스승 제자 있었구나.

7) 지팡이와 짚신으로 이름난 사람의 머무른 자취.

1)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

2) 물이 얼어서 된 얼음이 물보다 더 차갑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비유.

◎ 第七曲 交友(교우)

操心(조심)홀 닐 쏘 잇스니
벗 사귀기 극난(極難)헛다
貧賤(빈천)타고 발일 것가
富貴(부귀)로도 取(취)치 말고
面目(면목)으로 親(친)츠 하며
言語(언어)로 踈(소)히 홀가
年齒高下(연치고하) 못지 말고
志氣淸濁(지기청탁) 斟酌(짐작)헛야
益者三友(익자삼우)¹⁾ 부디 두고
損者三友(손자삼우)²⁾ 말나 헛식
君子朋友(군자붕우) 살펴 보니
信義(신의)으로 許心(허심)헛야
그은 道理(도리) 마지 안고
올은 닐로 責善(책선)헛야
憂樂無忘(우탕무망) 當付(당부)헛고
死生同心(사생동심) 盟誓(맹서)헛식
淡淡(담담)헛다 물가터여
맛 업슨 듯 헛거니와
물가치 말근 交道(교도)
百年(백년)인들 홀일소냐
小人朋黨(소인붕당)³⁾ 도라보니
酬酌(수작)으로 許友(허우)헛야
初脩人事(초수인사) 諧談(해담)이요
두 번 보아 爾汝(이여)헛야
稱兄稱弟(칭형칭제) 可憎(가증)이요
外親內疎(외친내소) 面面(면면)이라
제 몸이 有餘(유여)헛면
艱難(간난)헛 벗 阻面(조면)헛고
넋 몸이 賤(천)케 되면
貴(귀)헛 벗슬 望斷(망단)⁴⁾헛넋

조심할 일 또 있으니
벗 사귀기 어렵구나.
가난하고 천하다고 버리거나,
부유하고 귀하다고 취하지 말고
생김새로 친하자고 할 것이며
말로써 소홀히 할 것인가.
나이가 많고 적음 묻지 말고
지조의 옳고 그름 짐작하여
도움 주는 세 벗은 부디 두고
손해를 끼치는 세 벗은 멀리하세.
군자들의 벗 사귀를 살펴보니
신의로 마음을 허락하며
그른 도리 말자 하고
옳은 일로 착한 일을 권하여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마땅히 부탁하고
함께 고생하여 죽고 살기 맹세하네.
담담하기 물 같아서
맛없는 듯 하거니와
물같이 맑은 사귀의 도
백 년이 지나간들 흐릴 소냐.
소인들이 무리 만듭을 돌아보니
술잔을 나누면서 벗을 삼고
처음하는 인사에도 농담이요,
두 번 보고 너나들이 하여
형님 동생 부르거니 가히 미워할 만 하네.
겉으로는 친한 척 속으로는 멀리하네.
제 몸이 넉넉하면
가난한 벗 교제 끊고
내 몸이 천하게 되면
귀한 벗을 그릇되게 판단하니

1) 사귀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세 가지 부류의 벗. 정직한 벗, 신의 있는 벗, 지식이 있는 벗

2) 사귀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세 가지 부류의 벗. 곧 편벽한 벗,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벗, 너무 착하기만 하고 쫓대가 없는 벗 등의 세 가지.

3) 이해나 주장 등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합체.

4)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처지가 딱함.

小人親舊(소인친구) 알기 쉽다
죽자 사자 흥난 양이
巧言令色(교언영색) 爲先(위선)하고
阿諛求容(아유구용) 第一(제일)이라
脅肩諂笑(협견도소) 저 벗 보소
笑中有刀(소중유도) 뉘 아닌다
꿀가치 만난 벗이 맞사사 만체마는
마음 안에 김흔 닐을
親舊(친구)라고 情談(정담)하여
利盡情疎(이진정소) 다른 날의
大禍將至(대화장지) 염려로다
楚越(초월)¹⁾가탄 肝膽(간담)으로
管鮑(관포)²⁾가치 親(친)츠 혼들
一生談笑(일생담소) 外面(외면)이요
千里山海(천리산해) 中心(중심)이라
이 벗 보고 저 벗 害談(해담)
그 사람도 벗시든가
벗시라 親(친)차 흥면
信字(신자)뵈기 다시 엇다
넋 사람의 親舊(친구) 보소
古書(고서)나 닐너 두식
友也者(우타자)는 友德(우덕)이니
以友輔仁(이우보인) 하자 흥면
貴(귀)호노라 挾貴(협귀)하며
나만타고 狹長(협장)홀가
漢之相國(한지상국) 宋仲子(송중자)³⁾는
貧賤之交(빈천지교) 잊지 안코
行年五十(행년오십) 孔文學(공문거)⁴⁾는
忘年之友(망년지우) 두엇도다

소인인지 친구인지 알기 쉽다.
죽자 살자 하는 모습
교묘한 말 아첨하는 얼굴을 먼저하고
아첨하며 얼굴을 꾸밈이 제일이라.
어깨를 간드리며 아양 떠는 저 벗 보소.
웃음 속에 칼 있음을 뉘 알 것인가.
꿀같이 만난 벗이 맛이야 많지마는
마음 안에 깊은 일을
친구라고 정답게 이야기할까.
이로움이 다하고 정 소홀한 날이 되면
큰 재앙이 닥쳐올까 염려로다.
간 쓸개처럼 가까워도 초나라 월나라 되고
관중과 포숙같이 친하고자 한들
한평생 웃으면서 말하는 것 외면하고
천 리 밖의 먼 산과 바다가 중심이라.
이 벗 보고, 저 벗 험담
그 사람도 벗이던가.
벗이라고 친하게 지내려면
믿을 신(信)자 밖에 다시 없다.
옛사람의 친구 사귀를 보소.
옛 책에서 살펴보세.
벗이라 함은 덕과 벗함이니
벗으로서 인연맺어 어짊을 서로 갖추니
귀하다고 귀함을 뽐내고
나이 많다 나이를 자랑할까.
한나라 때 재상이던 송중자는
가난할 때 사귀 벗을 잊지 않고
나이 오십에도 공문거는
나이에 상관 않고 친구를 사귀었다.

1)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이.

2) 중국의 관중과 포숙아(鮑叔牙). 두 사람의 우정이 펍 두터웠다는 데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귀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 함.

3) 중국 후한(後漢) 때의 송홍(宋弘). 광무제(光武帝)가 과부가 된 누나 호양공주(湖陽公主)의 배필을 찾으려 송홍에게 "속담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꾸려 한다고 하오.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하고 말하자 송홍이 "신은 어려울 때 사귀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술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은 아내는 마루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함.

4) 중국 후한(後漢) 말기의 학자 공융(孔融)은 나이 쉰이 되어 스무 살의 천재 예형(禰衡)과 사귀었던 데서 나온 말.

豫讓(예양)의 市上友(시상우)¹⁾도
知己之友(지기지우) 참 버시오
孫杵臼(손저구)²⁾의 地下友(지하우)는
刎頸之友(물경지우)³⁾ 참 벗시라
어지타 晏平仲(안평중)⁴⁾은
善與人交(선여인교)平生(평생)이라
久而敬之(구이경지) 헛다 헛니
朋友有信(붕우유신) 그 뿐이라

예양의 저잣거리의 벗은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참 벗이오.
손저구가 우애는
죽음을 함께 해도 변하지 않는 벗이요,
어질다 안평중(晏平仲)은
사람들과 선으로써 사귀기를 평생했네.
오래도록 공경하였다 하니,
벗을 사귀는 데 믿음이 있을 뿐이라

-
- 1)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지백의 신하로 지백을 죽인 조양자에게 보복을 하려다 발각된 뒤에 다시 기회를 엿보기 위해 온몸에 옷칠을 하여 몸뚱이를 바꾸고 숲을 삼켜 목소리도 달라지게 하였더니, 그의 아내도 예양을 몰라 보았지만, 친구는 알아보았다는 데서 나온 말.
 - 2)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공손저구(公孫杵臼). 대장군 도안고(屠岸賈)의 무고로 충신 조순(趙盾)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조순의 아들로 왕의 사위였던 조삭(趙朔)마저 유복자만 남기고 죽게 되었고, 이때 조씨 가문의 은공을 입은 정영(程嬰)이 자신의 갓난아기를 대신 희생시키고, 은태한 고관대작인 공손저구는 정영을 대신해 목숨을 바치고, 정영의 아내 역시 자결함. 조삭의 아들인 조무는 도안고의 양자가 돼 정영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가, 스무 살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복수를 하고 정영은 공손저구를 만나기 위해 자결을 하였다 함.
 - 3) 벗을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한이 없을 만큼 친밀한 사이.
 - 4)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인 안영(晏嬰).

◎ 第八曲 睦族(목족)

이바 各姓(각성) 門生(문생)더라
睦族(목족) 홀 닐 드러서라
親兄親弟(친형진제) 同父母(동부모)로
六親九族(육친구족)¹⁾ 되여 갈 제
親(친)히 ्ह면 一門(일문)이요
멀니 ्ह면 一家(일가)로다
一門之內(일문지내) 一家間(일가간)의
틈이 업시 조케 스식
呼兄呼叔(호형호숙) 말만 말고
敦睦(돈목)으로 當付(당부)하야
冠禮婚禮(관례혼례) 諸凡節(제범절)과
喪葬祭祀(상장제사) 大小事(대소사)의
못 ्ह더라 是非(시비) 물고
갓가지로 賻助(부조)하야
遠近(원근)으로 厚薄(후박) 업시
貧富(빈부)로 溫冷(냉온) 마소
至情之間(지정지간) 그르치면
怒(노)흠나기 아조 쉽네
義理上(의리상)의 損傷(손상)하면
간디마닥 罪人(죄인)이라
百代之親(백대지친) 同姓氏(동성씨)의
멀어간다 疎(소)히말고
凡百(범백)닐의 차물 忍字(인자)
世業(세업)으로 傳受(전수)하고
憂患疾苦(우환질고) 同心同力(동심동력)
家法(가법)으로 銘念(명념)하식
厚(후)히 홀 디 薄(박)히 ㅁ소
物有本末(물유본말) 그르친다
親(친)히 홀 디 疎(소)히 ्ह면
事有始終(사유시종) 못 될세라
後孫宗風(후손종풍) 和同(화동)하면
先祖魂靈(선조혼령) 欣喜(흔희)하네

이보시오, 각 성씨 문중의 사람들아.
친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일 들어봐라.
한 부모의 형제라 할지라도
먼 친척과 일가같이 되어갈 수 있으니
친하게 지내면은 한 가문이요,
멀리하면 일가일 뿐이로다.
한 문중 안에서 한 집안 사이에서
틈이 없이 좋게 사세.
형님 숙부 부르지만 하지 많고
정 두텁게 화목하게 당부하여
관례 혼례 모든 예의범절
장례 제사 크고 작은 일에
못하겠다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고
갓가지로 서로 도와
멀다고 박하게 하고 가깝다고 후하게 말고
가난하고 부유하다 따뜻하거나 차게 마소.
지극한 정을 그르치면
성내기가 아주 쉽네.
의리가 손상되면
간 데마다 죄인이라.
여러 대에 친분 쌓은 친척이
멀어진다 소홀히 말고
모든 일마다 참을 인(忍)자
대대로 가업으로 전해주고
근심 걱정 질병 고생 한마음 한 힘으로
집안의 법도 세워 명심하세.
후하게 할 데 박하게 하지 마소.
근본과 끝이 있는 모든 일들 그르치네.
친하게 할 데 소홀히 하면
처음이 있어도 끝이 있지 않으리라.
후손의 종파들이 함께 풍습 화목하면
선조의 혼령 기뻐하네.

1) '육친'은 고조로부터 현손(玄孫)까지의 친족. '구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직계친은 위로 4대 고조, 아래로 4대 현손까지이며, 방계친은 고조의 4대손인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한 친족.

服盡(복진)¹⁾흐다 情衰衰(정쇠) 마소
路上行人(노상행인) 못 면흐리
同根(동근)의 枝枝葉葉(지지엽엽)
子孫(자손)이사 만컨마는
先代奉祀(선대봉사) 傳重(전중)흐고
舊山守護(구산수호) 次知(차지)로다
宗子宗孫(종자종손) 重(귀)흐 子孫(자손)
부딕부딕 厚待(후대)흐소
壽陽張公(수양장공)²⁾ 九世同居(구세동거)
몇 百人(백인)이 同居(동거)흐며
江洲陣氏(강주진씨)³⁾ 百人同居(백인동거)
몇 대 子孫(자손) 同居(동거)흐고
九世子孫(구세 자손) 집이 업서
各居(각거)홀 줄 몰나스며
百餘人(백여인)이 財物(재물) 업서
分財(분재)홀 줄 몰라실가
同居(동거)흐는 世業(세업)이며
同席(동석)흐는 家風(가풍)이라
同姓一家(동성일가) 諸父兄(제부형)은
外征脩齊(외정수제) 금즉흐다
各姓嫂姑(각성수고) 諸婦人(제부인)은
內政睦婣(내정목인) 至樂(지락)흐다

먼 친척이라 인색하게 하지 마소
길 위에서 떠도는 행인을 못 면하네.
한 뿌리에 생겨난 가지와 잎들처럼
자손이야 많더라도
조상 제사 모시는 일 소중하고
그 다음 선산 지킬 일이로로다.
종갓집 아들 손자 귀한 자손
부디부디 후히 대하소.
수양장공 구 세가 함께 살고
몇 백 명이 같이 살았거나
강주 진씨 많은 사람 한자리에 모여 살아
몇 대 자손 함께 살더라도
구 세 자손이 집이 없어
따로 살 줄 몰랐으니
수 많은 후손들이 재물 없어
재산 나눌 줄을 어이 몰랐을까.
함께 사는 것은 대대 이어 오는 일이요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은 집안의 풍속이라.
일가친척의 모든 부모 형제는
밖에서 몸 바르게 집안을 다스리고
성이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안에서 화목하니 즐거움이 지극하다.

1) 8촌을 넘어선 친척. 상복을 입어줄 촌수는 넘어섰다는 뜻.

2) 장공예(張公藝). 복제, 복주, 수나라, 당나라 4왕조에 걸쳐 99세까지 장수했으며, 한 집에서 9대가 화목하게 같이 살았는데 가족이 약 900명에 달했다고 함.

3) (?)

◎ 第九曲 喪葬(상장)

사람마다 子息(자식)되여
喪葬禮節(상장예절) 關重(관중)하다
昊天罔極(호천망극)¹⁾ 送終(송종)할 제
집집마다 다르더라
古禮(고례)만 崇尚(숭상)하고
식 法(법)은 닳지 마소
艱難有餘(간난유여) 議論(의논) 말고
稱家有無(칭가유무) 하여서라
怪變(괴변)일네 佛事巫覡(불사무격)
喪家風樂(상가풍악) 誤事(오사)로다
惑世誣民(혹세무민) 저 地師(지사)야
明堂吉地(명당 길지) 易言(역언)하야
三年求山(삼년구산) 十年裁穴(십년재혈)
過期不葬(과기부장) 하단 말가
亂世中(난세중)의 權葬(권장)
太平世(태평세)의 무삼 님고
엇지타 永葬(영장)되여
萬年幽宅(만년유택) 그르치면
孝誠未盡(효성미진) 姑舍(고사)하고
白骨靡寧(백골미녕) 冤痛(원통)하다

사람마다 자식된 도리
장례 예절 매우 중요하다.
하늘 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제
장례 예절 집집마다 다르더라.
옛 법을 숭상하고
새 법은 따르지 마소.
가난한지 넉넉한지 따지지 말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할 것이라.
괴변이네, 불교나 무당에게 의지하는 것
상가 집 미풍양속 해치는 나쁜 일로세.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풍수쟁이야
명당이라 좋은 땅이라 말을 바꾸어
삼 년 동안 산을 찾고 십 년 동안 자리 찾다
때 놓치고 장례 못한다 말이런가.
난리 속에 임시로 하는 장례
태평성대에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오랫동안 장례를 못 치루어
장례를 그르치면
효성을 다하지 못함은 고사하고
백골이 편하지 못하여 원통하다.

1) 아버지의 은혜가 하늘같이 넓고 커서 다함이 없음

◎ 第十曲 祭祀(제사)

大小祥(대소상)¹⁾의 祭祀(제사)보소
산 사람의 잔치런가
菜果不食(채과불식)ᄃᆞ난 집의
酒肉(주육)이 狼藉(낭자)ᄃᆞ고
散劑致劑(산제치제) ᄃᆞ난 날의
烹羊宰牛(팽양재우) 豐備(풍비)ᄃᆞ여
小心畏忌(소심외기)ᄃᆞ난 밤의
言語戲謔(언어희학) 무삼 닐고
家禮喪禮(가례상례)²⁾ 지은 쓰슨
淸酌庶羞(청작서수) 장만ᄃᆞ야
남의 耳目(이목) 爲(위)치 말고
넉의 精誠(정성) 極盡(극진)ᄃᆞ야
淨(정)결히 齋戒(재계)ᄃᆞ고
追遠感時(추원감시) 奠獻(전헌)ᄃᆞ제
禮不足(예부족)은 물어 ᄃᆞ고
哀有餘(애유여)는 忌祀(기사)³⁾로다
一年一度(일년일도) 祭祀席(제사석)의
우리 父母(부모) 오시도다
즐기시든 各色飲食(각색음식)
쓰시든 盤床器皿(반상기명)
左脯右醢(좌포우혜)⁴⁾ 魚東肉西(어동육서)⁵⁾
禮法(예법)되로 陳設(진설)ᄃᆞ야
小心伏地(소심복지) 奠爵(전작)ᄃᆞ야
不勝永慕(불승영모) 再三獻(재삼헌)의
萬世後(만세후)의 가신 父母(부모)
四更末(사경말)⁶⁾의 되셔서라

대상 소상 제사 보소.
산 사람들 잔치인가.
나물이나 과일도 먹지 않는 집에
술과 고기 어지러이 흩어졌고
재를 마치거나 재를 올리는 날에
삶은 양과 저민 소를 넉넉히 갖춰두고
조심하고 꺼려 해야 하는 밤에
희롱하는 말은 무슨 일이고
가례와 상례를 만든 뜻은
술과 여러 음식 장만하여
다른 이들 이목 위해 하지 말고
나의 정성 극진히 하여
정결하게 몸을 닦고
아버이를 생각하며 안타깝게 제사할 제
예가 부족하면 물어 하되
슬픔이 남는 것은 기제사라.
일 년에 한 번 오는 제사 자리에
우리 부모 오시도다.
즐기시던 여러 음식
쓰시던 밥상과 그릇 위에
좌포우혜 어동육서
예법대로 상을 차려 놓은 후에
조심하여 땅에 엎드려 술잔을 올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 번 잔을 바치고
만세 후에 가실 부모
사경 끝에 되셨어라.

1)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2) '가례'는 한 집안의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3)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4)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를 차리는 제사 격식.

5) 생선을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제사 격식.

6)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 第十一曲 婚禮(혼례)

人間大事(인간대사) 살펴 보쇼
婚姻禮節(혼인예절) 關重(관중)하다
同姓不娶(동성부취) 혼난 말슴
聖賢君子(성현군자) 訓戒(훈계)로다
三十有室(삼십유실) 二十嫁(이십가)는
婚不失時(혼불실시) 그 씨로다
家勢貧富(가세빈부) 다 버리고
그 집 家行(가행) 第一(제일)이라
門閥(문벌)도 보려니와
一人賢否(일인현부) 極擇(극택)하쇼
窈窕淑範(요조숙범) 內政(내정)이오
文兼德行(문겸덕행) 君子(군자)로다
男女間(남녀간)의 極賢(극현)하면
貧賤(빈천)이 잠깐이요
스름 혼나 그르치면
富貴顯達(부귀현달) 오릴 것가
婚姻論財(혼인논재)하논 人心(인심)
오랑캐의 道理(도리)로다
盜跖(도적)¹⁾이도 富饒(부요)면
一妻二妾(일처이첩) 豪強(호강)하고
顏子(안자)²⁾라도 貧寒(빈한)하면
百年鰥居(백년환거) 못 免(면)하네
이러한 이 世上(세상)의
擇人(택인)을 하자 하면
捫屨織席(곤구직석)³⁾ 어딴디뇨
席門繩樞(석문승추) 寂寞(적막)하디
耕田鑿井(경전착정) 白屋中(백옥중)의
哲人長者(철인장자) 許多(허다)하고
織紵組紃(직임조순) 慇懃(근간)하며
採桑執麻(채상집마) 辛苦(신고)하고

인간 대사 살펴보쇼
혼인 예절 가장 중요하다.
같은 성씨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
성인군자 가르침이라.
삼십에 가정 이루고 이십에 시집가면
혼인 때를 놓치는 그때로다.
가정 형편 가난함과 부유함 생각말고
혼인할 일 그 집의 제일가는 행실이라.
문벌도 보려니와
한 사람이라도 현명한지 가려보쇼.
요조숙녀 예의범절은 지어미의 행실이요
학문 덕행 겸비는 군자의 행실이라.
남녀 간에 현명함이 지극하면
가난이나 천함은 잠깐이요
사람 하나 그르치면
부귀함이 나타날들 오래갈 것인가.
혼인할 때 재산을 따지는 인심
오랑캐의 도리로다.
도적이라도 부유하면
일처 이첩 호강하고
안회(顔回)라도 가난하면
평생토록 홀아비를 못 면하네,
이러한 이 세상에
사람을 고르려 하면
침으로 짠 험한 자리 어디인가.
거적을 매단 문짝 적막하기만 하더라도
밭을 갈고 우물 파는 초라한 초가에도
학식 높고 덕망 있는 훌륭한 이 많기만 하고,
베를 짜고 줄 꼬는 데 힘써 정성 다한다면
뽕을 따고 삼 모으는 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1) 옛날의 큰 도적. 부하 9천 명을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했으며, 태산(泰山) 기슭에서 사람의 간을 회로 썰어 먹었다 함.

2)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

3) 삼이나 침으로 신을 삼고 돛자리를 짠다는 것으로 가난하게 지냄을 뜻함.

燃火汲水(연화급수) 寒廚下(한주하)의
淑女孝婦(숙녀효부) 生長(생장)하다
荊山璞玉(형산박옥)¹⁾ 沙中金(사중금)과
幽谷芳蘭(유곡방란) 여기로다

불 지피고 물을 길는 추운 부엌 아래서도
현숙한 딸 효성스런 며느리가 성장한다.
형산의 옥돌이며 모래 속의 묻힌 금과
깊은 계곡 향기로운 난초가 여기로다.

1) 어질고 착한 사람.

◎ 第十二曲 婚家儀式(혼가의식)

大凡(대범) 님넢 男婚女嫁(남혼여가)
일로조차 斟酌(짐작)하라
非媒不得(비매부득) 홀 거시니
異姓(이성) 차자 結婚(결혼)홀 제
親戚朋友(친척붕우) 알게 하고
昭告祀堂(소고사당) ㄴ난 禮(예)는
上繼父母(상계부모) 天倫(천륜)이요
下有子孫(하유자손) 人極(인극)¹⁾이라
奠雁納幣(전안납폐)²⁾ ㄴ난 禮(예)는
有別(유별)홀 뜻 厚(후)케 하고
之子于歸(지자우귀) 舅姑禮(구고례)³⁾는
宜其家人(의기가인) 根本(근본)이라
聘禮(빙례)ㄴ면 안히 되고
그저 가면 別家(별가)로다
構木爲巢(구목위소) 太古世(태고세)의
伏羲氏(복희씨)⁴⁾의 뜻이로라
글 字(자) 짓든 니튼 날이
記錄(기록)홀 툼 만컨마는
작 가죽을 벗겨너여
嫁娶禮(가취례)을 묻져 ㄴ식⁵⁾

높은 자리 계신 분들, 남자 여자 결혼하기
이로부터 좇아서 짐작할 것이리라.
부득이 중매쟁이 없는 혼인 할 것이면
다른 성씨 찾아서 혼인할 때
친척이나 친구들이 알게 하고
사당에서 조상들께 고하는 예절은
위로는 부모 계통 잇게 하는 천륜이요,
아래로는 자손들을 잇게 하는 사람됨이라.
기러기를 들고 가고 폐백을 보낼 때는
분별함이 있다는 뜻 후하게 할 것이고
며느리가 시집에서 시부모를 뵈는 예는
마땅히 그 집안의 사람됨의 근본이라.
혼인의 예를 하면 아내 되고
그저 남자 따라가면 첩이로다.
나무 엮어 둥지 짓던 먼 옛날의
복희씨의 뜻이로다.
글을 짓던 다음 날에
기록할 일 많았지만
삼 가죽을 벗겨 내어
남녀 간에 혼인하는 예를 먼저 하였구나.

1) 사람의 무상(無上)한 도.

2) '전안'은 혼인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갖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이고, '납폐'는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3)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

4) 고대 전설상의 삼 황제 중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백성에게 고기잡이·농경·목축 등을 가르치고 팔괘(八卦)와 문자를 만들었다고 함.

5) 복희씨가 가죽옷을 입고, 결혼을 제도화했던 일.

◎ 第十三曲 接賓(접빈)

世上(세상)일이 함도 하다
接賓客(접빈객)의 人事(인사)로다
넋 집 차자 오난 손을
幸(행)여라도 薄待(박대) 마소
넋 門(문) 밧긔 나서 보면
닌들 아니 남일손가
飲食(음식)이야 粥飯間(죽반간)의
家勢(가세)되로 흘러니와
기도 아니 꾸짖거든
兒孩(아해) 밤의 울닐 것가
門前(문전)의 손 업스면
그 집 掀惡(흔악) 所聞(소문) 니넋
知與不知(지여불지) 親疎間(친소간)의
손마닥 尊敬(존경)히시
出門如見(출문여견) 大賓禮(대빈례)을
平生(평생)의 닛지 마시
元聖周公(원주주공) 待士(대사)보소
成王叔父(성왕숙부) 武王弟(주왕제)로
三吐哺(삼토포)며 三握髮(삼악발)¹⁾도
猶恐失之(유공실지) 히시도다
寂寞(적막)히 蓬華門(봉필문)²⁾의
소니 아니 반가온가
轍環天下(철환천하) 孔夫子(공부자)님
父母國(부모국)을 바리시고
東西南北(동서남북) 손이 되야
어딴 가니 踈待(소대)홀가
忌客(기객)히난 俗士(속사)덜라
陳蔡大夫(진채대부)³⁾ 되지 마소

세상 일은 많고 많다.
손님을 접대함이 사람의 일이다.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행여라도 푸대접 마소.
나도 문밖에 나가 보면
나인들 남의 집의 손님이 아니던가.
음식이야 죽이든 밥이든 간에
집안 형편대로 대접 하려니와
개도 아니 꾸짖는데
아이를 밤에 울릴 것이런가.
문 앞에 손님이 없으면
그 집의 나쁜 소문 드러나니
알거나 모르거나 친하거나 멀거나
손님마다 존경하세.
집 나서면 귀한 손님 맞는 예절을
평생동안 잊지 마세.
주 무공이 선비를 대하는 모습 보소.
왕의 숙부 주 무왕의 동생도
세 번 뺄고 세 번 머리 감음도
오직 예를 잃을까 두려워 하심이라.
적막한 가난한 집의 문에
찾아온 손이 아니 반가운가.
수레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 공자님
부모 나라 버리시고
동서남북 손님이 되었어도
어디로 간다 한들 소홀히 대하겠나.
손님을 꺼리는 저속한 선비들아
진나라와 채나라의 대부가 되지 마소.

1) 주공은 주나라가 창업하는데 일등 공신이었고, 무왕의 동생이란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찾아온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 세 번을 뺄어내고 한번 머리를 감을 때 3번이나 머리를 감싸 매고 즉시 만났다고 함.

2) 쑥이나 가시덤불로 지붕을 이었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의 집을 이르는 말

3) 공자가 천하를 떠돌아다닐 때, 진나라와 채나라의 접경에서 두 나라의 대부들이 공자 때문에 초나라는 이롭게 되고 진나라와 채나라에는 해가 된다고 하여 공자 일행의 길을 막고 식량을 끊었던 일.

◎ 第十四曲 交隣(교린)

一洞一里(일동일리) 居生(거생)하야
交隣之道(교린지도) 더욱 조타
되흘 싸라 사자 하며
물을 보고 가난 것가
盜賊(도적) 올가 城府(성부) 살며
虎狼(호랑) 저혀 野村(야촌)인가
스름이 스름싸라
되와 스즈 하난 뜻은
成邑成聚(성읍성취) 出野村(출야촌)의
鄉約里約(향약이약)¹⁾ 條目(조목) 물어
孝烈之行(효열지행) 너도 하고
敦睦之風(돈목지풍) 나도 하고
山田野畔(산전야반) 辭讓(사양)하고
耕牛騎馬(경우기마) 假貸(가대)하며
업는 器皿(기명) 어더 쓰고
저근 飲食(음식) 난화 먹식
鷄鳴犬吠(계명견폐) 四境(사경)안의
이 아니 村風(촌풍)인가
挾貴凌賤(협귀능천) 아니 하면
抑强扶弱(억강부약) 절노 되리

같은 동네 같은 마을 함께 살 제
이웃 간에 사귀는 도리가 더욱 좋다.
산을 따라 살자는 것인가.
물을 보고 가는 것인가.
도적 올까 두려워서 성을 쌓고
범과 이리 무서워서 마을에 모여 사나.
사람이 사람 따라
모여 살자 하는 뜻은
읍을 이루고 마을 이뤄 외딴 삶을 면했으니
향약 이약 조목들을 물어가며
효자와 열녀 행실 너도 하고
두텁고 화목한 풍속을 나도 하세.
산의 밭과 들의 밭은 사양하고
밭 가는 소와 말을 빌려 쓰며
없는 농기구 나눠 쓰고
부족한 음식 나눠 먹세.
개와 닭 울음소리 들리는 가까운 곳
함께 사니 이 아니 시골 마을의 풍속인가.
귀하다고 으스대고 천한 사람 안 깔보면
힘센 이를 말리고 약한 이 돕게 되네.

1) '향약'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 '이약'은 마을 주민이 마을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자치 규약

◎ 第一節 寓接(우접)

元居之家(원거지가) 님로라고
寓接之人(우접지인) 忽待(홀대)마소
이웃 不和(불화) 되여 가며
鄉黨棄人(향당기인) 捷徑(첩경)이리
먼 眷黨(근당) 근 이웃시
俚言(이언)에도 明鑑(명감)이라
錢穀取貸(전곡취대) 忽여 갈 제
水火與受(수화여수) 가치 忽식
기짐싱이 답을 무니
사람조차 틈이 늘가
兒孩(아해) 싸흠 例事(예사)여날
얼운 싸흠 될 거신가
藍田呂氏(남전여씨)¹⁾ 鄉約(향약) 말슴
집집마닥 외와 두고
周禮(주례)의 鄉八刑(향팔형)은
사람마다 잊지마시
어진 사람 이웃호면
過化存神(과화존신)²⁾ ㅎ리로다

이리저리 옮겨사는 사람들 집 내노라고
잠시 거쳐하는 사람들을 홀대 마소.
이웃 간의 불화가 생기면
마을에서 사람을 못쓰게 하기 쉬움이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단 말이
속된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돈이나 곡식을 빌려 갈 때
물이나 불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세.
개 짐승이 답을 무는 것처럼
사람조차 틈이 나면
아이 싸움 예사로운 일이어늘
어른 싸움 될 것인가.
남전 여씨 향약 말씀
집집마다 외워 두고
주례의 향약의 여덟 가지 형벌을
사람마다 잊지 마세.
어진 사람 이웃하면
성인의 덕을 본받아 감화가 될 것이로다.

1) 중국 송나라의 남전여씨(藍田呂氏) 문중에서 그 마을을 향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여씨향약(呂氏鄉約)'으로 조선 향약의 모체가 되었음. ①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 덕업상권(德業相勸) ②과실을 서로 경계하는 것: 과실상규(過失相規) ③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 예속상교(禮俗相交) ④환난을 서로 구휼하는 것: 환난상휼(患難相恤)이 4대 강목임.

2) 성인(聖人)이 지나가는 곳에는 백성(百姓)이 그 덕(德)에 화(化)하고, 성인(聖人)이 있는 곳에는 그 덕화(德化)가 신묘(神妙)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말

◎ 第二節 慎口(신구)

平生立身(평생입신) 行己要(행기요)는
自不妄語(자불망어) 口舌(구설)이라
三寸舌端(삼촌설단) 그르치면
百年身勢(백년신세) 坎坷(감가)하니
셔 밋딴 드는 돌괴
스름마닥 다 잇느니
그 돌괴 듸도 든가
放心(방심)하면 亡身(망신)하니
語言薄過(어언박과) 輕(경)히 흘가
사람마닥 닛나니라
言足飾非(언족식비) 幸(행)혀 므소
말노 엇지 飾非(식비) 흘가
公然而 一言失(공연이 일언실)의
無端(무단)흔 白死地(백사지)로다
流水(유수)로도 못 씻거든
白圭(백규)¹⁾라 磨濯(마탁)홀리
造言之罪(조언지죄) 至嚴(지엄)하다
守口如瓶(수구여병) 一生(일생)흔식
已肆物忤(이사물오)²⁾ 헉는 거시
出悖入悖(출패입패) 當然(당연)하다
天高听卑(천고은비) 헉시느니
畏天(외천)하다 妄言(망언)마소
屬耳垣牆(속이원장) 하다 하니
關人(괴인)헉고 私談(사담) 말며
狂談醉說(광담취설) 즐겨 하면
繁(긴)흔 말이 實(실)이 엇다
靑山流水(청산유수) 疊疊(첩첩)하다
말 가는 길 못 마그며
바람 구름 지다 헉달
말치로 빨니 갈가
言無足而(언무족이) 行千里(행천리)니
無根之說(무근지설) 擧論(거론)마시

한 평생 이름 높이고 자신을 다스리기
함부로 입을 놀려 말하지 않는 것이라.
세 치 혀끝 잘못 놀리면
평생 신세 오래도록 험난하니
혀 밑에 들어있는 도끼
사람마다 다 있으니
그 도끼 들기도 들었는가.
방심하면 신세를 망치려니
말실수를 어찌 가벼이 할까
사람마다 있느니라.
아닌 것을 꾸며서 말하는 것 행여 마소.
말로 어찌 아닌 것을 꾸며서 할 것인가.
공연히 말 한 번 실수에
무단하게 죽는 땅에 이를 수도 있느니라.
흐르는 물로도 못 씻을 것이면
흰 구슬을 갈아 쪼을 것인가.
말 만든 죄 지극히도 엄하구나.
병마개 막듯이 입 막기를 평생 하세.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그러져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당연하다.
하늘은 높았어도 사람 귀는 낮았으니
하늘을 두려워하여 헛되이 말하지 마소.
담장에도 귀 기울이는 이가 많다 하니
사람들을 피하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세.
미친 말과 취한 주정을 즐겨 하면
긴요한 말을 할 때 실속이 없게 되네.
산과 강이 아무리 첩첩 쌓여 있다 해도
말 나가는 길 막지 못하며,
바람 구름 빠르다 한들
말같이 빨리 갈가
발 없는 말 천 리 가니
근거 없는 말은 거론하지 마세.

1) 흰 구슬(白圭)의 흠집은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흠집은 그럴 수 없다는 의미.

2)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됨.

春雉自鳴(춘치자명)¹⁾ 證實(증실)이요
桑龜慎言(상구신언)²⁾ 殷鑑(반감)이라
非禮勿言(비례물언) 非禮勿聽(비례물청)
先聖(선성)이 날 소길가
言必忠信(언필충언) 刻骨不忘(각골불망)
明哲保身(명철보신) 헝리로다

봄에 꿩이 스스로 우는 것이 그 증거요
뽕나무가 거북이 말 삼가는 것 본받아라.
예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 아니면 듣지 말라
공자께서 나를 속이실 것인가.
꼭 충성된 말만 하기 뺏속 깊이 잊지 말고
매사에 법도에 맞게 온전하게 처신하라.

-
- 1) 봄철의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함
2) 상구지계(桑龜之戒). 옛날 한 어부가 큰 거북을 잡아 아무리 불을 때도 거북이는 살아지지 않고 살아 움직여 결국 거북이를 놓아주기로 하고 바다로 가던 중 언덕에서 쉬다가 잠이 들고 말았는데, 뽕나무가 꿈에 나타나 거북이는 뽕나무로 살아야 잘 살아진다고 일러 주어, 어부는 옆에 있던 뽕나무를 베어 거북이를 다시 삶을 수 있었다는 고사. 뽕나무가 자신에게 불리한 약점을 스스로 실토하는 바람에 자신도 결국 타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처지는 망각한 채 상대방의 처지와 약점만 드러낼 경우 결국 둘 다 화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 第三節 居家(거가)

열네 別曲(별곡) 그만 두고
모도 닐너 議論(의논) 하식
居家修養(거가수양) 못흔 스름
鄉黨出入(향당출입) 懃懃(근간) 하다
넉 몸 일도 못 살피고
남의 是非(시비) 誠實(성실) 하다
虛靈不昧(허령불매)¹⁾ 一心性(일심성)은
하날님이 주신 비라
놓치 말고 구지 자바
百年(백년)을 修養(수양) 할 제
日月光明(일월광명) 하신 빛춘
耳目聰明(이목충명) 次知(차지) 하며
春夏秋冬(춘하추동) 循環期(순환기)는
呼吸(구허호흡) 自然(자연)이라
四方體位(사방체위)²⁾ 四肢(사지) 되고
五行理氣(오행이기)³⁾ 五臟(오장)⁴⁾ 숨아
滄海一粟(창해일속)⁵⁾
土木形體(토목형체)
與天地(여천지)로 三才(삼재)⁶⁾로다
一日三省(일일삼성) 아모쪼록
輕(경)히 말고 重(중)히 가져
生而知之(생이지지) 聞一知十(문일지십)
聖人(성인)은 못 되나마
作之不已(작지불이) 日就月將(일취월장)
君子(군자)는 지여 하식
專心致之(전심치지) 從容(종용) 하야
閒居愼獨(한거신독) 할 거시니
혼즈 안져 하난 일을

열네 별곡 그만두고
모두 일러 의논하세.
집을 떠나 몸을 닦지 못한 사람
시골 마을 나서는 일 힘쓰는구나.
내 몸 일은 못 살피고
다른 사람 옳고 그름 말하기에 열중이라.
잡스럽지 않고 신령스러운 마음은
하느님이 주신 바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
백 년을 닦아갈 때
해와 달처럼 밝게 비추는 빛은
귀와 눈이 총명하게 하여 차차 알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 것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사방의 체위가 두 팔과 두 다리 되고
오행의 이치와 기운이 오장을 만들어
한 알의 좁쌀처럼 미미한 몸
흙이나 나무처럼 무너지고 썩는 몸이
하늘 땅과 더불어 삼재가 되었도다.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하는 일 아무쪼록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
나면서부터 알거나 하나 들어 열을 아는
성인은 못되더라도
끊임없이 힘 다하여 나날이 발전하여
군자는 되어보세.
마음 다해 뜻한 바를 이루도록 조용하게
한가로이 거하면서 홀로 삼갈 것이니,
혼자 앉아 하는 일을

1) 마음에 잡스러운 것이 없고 영묘하여 어둡지 않음.

2) '사방'은 동, 서, 남, 북 네 방위. '체위'는 '양의(兩儀)'인 양과 음.

3)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가지의 원소. '이기'는 성리학에 서, 우주를 이루는 근본의 이(理)인 태극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음양의 기(氣).

4)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腎臟)의 다섯 가지 내장.

5) 넓고 큰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과도 같이 미미한 존재.

6) 하늘과 땅과 사람.

뉘라셔 알려 홀고
딥고도 무겁든가
부질업시 갓설 벗고
기푼 물을 건너든가
보신 벗고 옷 거드며
坐臥起居(좌와기거) 常(상)이 업서
無所不爲(무소불위) 헉다가도
稠人中果(조인중과) 多士席(다사석)의
掩其不善(엄기불선) 헉건마는
積於中者(적어중자) 發於外(발어외)라
莫顯手隱(막현수은) 절노 되너
十目所視(십목소시) 十手所指(십수소지)
진실토 嚴(엄)헉도다

누가 알려 할 것인가.
깊으면서도 무겁든가.
부질없이 갓을 벗고,
깊은 물을 건너든가
버선 벗고 옷을 걷으며,
앉고 눕고 일어서며 생활에 법도 없어
못하는 바가 없이 하다가도
빹빹한 사람들과 선비 많이 모인 자리에
그 선하지 않음을 숨기고자 하건만
가슴 속에 쌓인 것들 밖으로 드러나는지라
안 보이려 손으로 가리려도 절로 보이네.
여러 사람 보고 있고 여러 사람 가리키니
진실로 엄하도다.

◎ 第四節 室慾(질욕)

淸心室慾(청심질욕) 힘써 보식
스름 慾心(욕심) 無常(무상)
이편 子息(자식) 그른 일을
넉 斟酌(짐작) 못 하고서
남이 와서 글오다 하면
그 사람을 怪(괴)이 보며
넉 穀息(곡식) 크는 줄을
이 편이 몰라 보고
남의 穀息(곡식) 못된 거슬
넉 것두곤 낫다 하네
人心(인심)이 이러하기는
엇지하야 글이 혼고
慾心中(욕심중)의 危殆(위태)한 일
色界上(색계상)에 謹避(근피)하식
伐牲之物(벌성지물) 親(친)히 하면
落眉之厄(낙미지위) 갓잡도다
한 番(번) 失足(실족) 그르치면
百番(백번) 주거 제 減壽(감수)라
네와 이제 몇 스름이
平生(평생)을 그르친고
꽃 찾난 저 나부야
거무실이 禍網(화망)이라
그 실 罣(걸)린 後(후)의
春興(춘흥)도 간 대 업다
世上(세상) 사람 눈 잇거던
저 나부를 못 볼손야
好色(호색)하느 그 마음을
賢賢(현현)으로 易之(역지)하쇼
浩蕩之物(세탕지심) 술 아닌가
술먹기를 擲節(준절)하식
한 잔의 醉(취)할진딘
두 잔 먹기 아조 쉽네
아무리 端正人(단정인)도
먹어 두면 放蕩(방탕)하네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 멈추기 힘써 보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내 자식의 그릇된 일
내가 짐작 못하고서
남이 와서 그르다 하면
그 사람을 이상히 보며,
내 곡식이 자란 줄을
내가 몰라 보고
남의 곡식 잘못 되도
내 것보다 낫다 하네.
사람 마음 이러한 것이
어찌하여 그러한가.
욕심 중에 위태한 일
색 밝히기 삼가고 피하세
목숨을 끊는 물건 가까이 하게 되면
눈앞에 닥친 재앙 가깝도다.
한 번 발을 잘못 디더 그르치면
백번 죽을 만큼 수명이 짧아지네.
옛날과 지금의 몇 사람이
평생을 그르쳤나.
꽃을 찾는 저 나비야.
거미줄에 걸린 재앙이라.
그 실 끝에 걸린 후면
봄 흥취도 간데없다.
세상 사람들 눈 있거든
저 나비를 못 볼 것인가.
색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현명함으로 바꾸소서.
마음을 깨끗이 씻는 술 아닌가.
술 마시기 줄이게나.
한 잔에 취할진대
두 잔 먹기 아주 쉽고,
아무리 단정한 사람도
술 마시면 방탕하네.

放蕩(방탕)하야 醉狂(취광)되면
말이 날 제 擇言(택언)홀가
먹기스 먹식마는
鄉飲酒禮(향음주례)¹⁾ 잊지마식
謹厚(근후)흔 性情(성정)으로
凶險(흉험)흔 類(유) 되단 말가
亡身敗家(망신패가) 傾悖者乙(경패자을)
넛 글의 歷歷(역력)하다

방탕하여 주정뱅이 될 양이면
말인들 가려서 하겠는가.
술을 마시기야 마시지만
술 마시는 예절을 잊지 마세.
삼가고 후덕한 성정으로
흉악한 무리가 된다는 말인가.
집안을 기울이고 자신도 망하던 일
옛글에 역력히 드러나 있노라.

1) 온 고을의 유생이 모여 향약(鄉約)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던 예절.

◎ 第五節 讀書(독서)

鄉曲(향곡)의 자라나서
廢人前程(폐인전정) 더욱 마식
啓蟄不殺(계칩불살) 方長不折(방장부절)¹⁾
生生物理(생생물리) 天地(천지)로다
火田衝火(화전충화) 그 用心(용심)은
逆天地之(역천지지) 造化(조화)로다
天地間(천지간)의 得罪(득죄)할 일
남은 헉나 나는 마식
거울이 거울인가
古事蹟(고사적)이 거울이오
스승이 스승인가
人善惡(인선악)이 스승이라

헉여 보식 헉여 보식
立志工夫(입지공부) 헉여 보식
正其理(정기리) 明其道(명기도)난
百事萬事(백사만사) 利成(이성)헉고
尊所聞(존소문)과 行所止(행소지)난
一動一靜(일동일정)이 閒安(한안)헉다
另念(염념)²⁾헉식 另念(염념)헉식
劑家工夫(제가공부) 另念(염념)헉식
夫夫婦婦(부부부부) 操心(조심)헉니
宜室宜家(의실의가) 즐겁도다
兄兄弟弟(형형제제) 友愛(우애)헉며
及老及幼(급노급유) 부디 하식

부디 헉식 부디 헉식
修身工夫(수신공부) 부디 헉식
孝悌忠信(효제충신)³⁾ 어진 일은
一心所期(일심소기) 헉여 두고
正大寬平(정대관평) 잊지 마소

시골에서 자라나서
남의 앞길 망치는 일 더욱 따르지 마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초목을 꺾지 않으니
목숨 있는 생명 살리는 게 천지의 이치로다.
불난 곳에 불 지르듯 마음을 쓰는 일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거스르는 일이다.
세상에서 죄 짓는 일
다른 이는 하더라도 나는 마세.
거울이 왜 거울인가.
옛일들이 거울이요,
스승이 왜 스승인가.
다른 이의 잘잘못 모든 일이 스승이라.

하여 보세 하여 보세.
뜻 세우는 공부하세.
이치를 밝게 하고 그 도를 밝게 함은
온갖 일을 이롭게 하고
들은 바를 존중하고 아는 바를 행하면은
하나하나 움직임이 한가하고 평안하다.
돌보아 주세, 돌보아 주세.
집 다스리는 공부 돌보아 주세,
남편답게 아내답게 조심하니
집안이 즐겁도다.
형답게 아우답게 사랑하기
노인에서 아이까지 미치도록 부디 하세.

부디 하세, 부디 하세.
몸 바르게 하는 공부 부디 하세.
효제충신 어진 일은
한마음으로 기약한 대로 하고
바르고 관대하게 다스리는 것 잊지 마소.

1) 거울잠에 깨어난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한창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음.

2)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게 생각하여 걱정하거나 돌보아 줌

3)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사이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사이의 믿음.

百體從令(백체종런) 아니 홀가
아니 홀가 아니 홀가
接物工夫(접물공부) 아니 홀가
愛人敬人(애인경인) 專一(전일)하면
남이 나를 愛敬(애경)하고
言顧行顧(언고행고) 誠宗(성포)하면
넋의 言行(언행) 남이 보네

힘써 보시 힘써 보시
安貧工夫(안빈공부) 힘써 보시
貧富貴賤(빈부귀천) 天定(천정)이라
人力(인력)으로 取捨(취사)홀가
吉凶禍福(길흉화복) 自己求者(자기구자)
天知神知(천지신기) 소길 것가
말 거신가 말 거신가
處世工夫(처세공부) 말 거신가
人間(인간)의 是非長短(시비장단)
不聞不睹(불문불도) 第一(제일)이라
座上(좌상)의 言語酬酢(언어수작)
如痴如聾(여치여롱) 爲先(위선)하식

爲先(위선)하식 爲先(위선)하식
臨財工夫(임재공부) 爲先(위선)하식
非道非義(비도비의) 남의 財物(재물)
一介猶嫌(일개유협) 하도소니
勿取勿與(물취물여) 分明(분명)하면
百事可做(백사가주) 丁寧(정녕)하다

알어두시 알아두시
止謗工夫(지방공부) 알아두시
誰毀誰譽(수훼수예) 남의 口舌(구설)
無怨無愆(무원무건) 넋 일이라
남이 나를 稱讚(칭찬)하면
稱讚(칭찬) 싯틱 害談(해담) 온다
害談(해담)하다 슬허 마쇼
直木曲影(직목곡영) 잇실손가

온몸으로 이 명령을 좇지 아니할까.
아니할까, 아니할까.
남과 교제하는 공부 아니할까.
사랑하고 존경하기 온전하게 꾸준히 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과 행실 돌아보고 진실로 조심하면
나의 언행 남이 보네.

힘써 보세 힘써 보세.
안빈낙도 공부를 힘써 보세.
빈부귀천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인력으로 취하고 버릴 것인가.
길흉화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
하늘과 신이 알 터인데 속일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처세하는 공부 그만 둘 것인가.
인간의 옳고 그름 장단점을
듣지 않고 안 보는 게 제일이라.
앉아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
귀머거리처럼 바보처럼 먼저 하세.

먼저 하세, 먼저 하세.
재물을 다스리는 공부 먼저 하세.
도리와 의리에 어긋나는 남의 재물
하나라도 오히려 싫어해야 하는 것이니
주고 받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모든 일들 온전히 되는 것이 틀림없다.

알아두세, 알아두세.
헐뜯기를 멈추는 공부를 알아두세.
누구를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내 일이라.
남이 나를 칭찬하면
칭찬 끝에 해하려는 말이 온다.
나쁜 말을 한다고 싫어 마쇼.
꽃꽂한 나무에서 그림자가 휘어질까.

넋 집의 一片靈臺(일편영대)
그 집 치레 華麗(화려)하다
半畝丹田(반묘단전) 터을 어더
一貫之道(일관지도) 길을 닦아
三綱(삼강)으로 立柱(입주)하고
五倫(오륜)으로 上樑(상량)해야
忠孝(충효)로 門(문)을 넘어
誠敬(성경)으로 塗壁(도벽)하고
思無邪(사무사)와 毋不敬(무불경)은
丹青(단청)으로 글여 두고
九容九思(구용구사)¹⁾
四勿箴(사물잠)²⁾은
付壁書(부벽서)³⁾로 부쳐시나
仁樞義戶(인추의호) 道德門(도덕문)은
昇堂入室(승당입실) 뉘 뉘신고
집 主人(주인)을 찾자 하니
泰然天君(태연천군) 아니신가
上樑文(상량문)의 文(문) 말씀
보기 조코 알기 쉽다

拋樑東(포량동)⁴⁾ 萬萬世(만만세)의
博愛之謂(박애지위) 仁(인)이라
仁字(인자) 뜻을 살펴 보니

내 집은 한 조각의 내 마음이니
그 집이 준수하고 화려하다.
반 이랑의 작은 밭에 터를 얻어
한결같은 도리로 길을 닦고
삼강(三綱)으로 기둥을 세워두고
오륜(五倫)으로 서까래 올린 후에
충과 효로 문을 내어
성실과 공경으로 벽 칠하고
악하지 않은 것과 불경하지 않는 것으로
단청으로 그려두고
아홉 번 행동하고 아홉 번 생각하며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일들은
부벽서로 붙여두고
인(仁) 문고리, 의(義) 문짝으로 만든 도덕문에
모든 문 지나 방까지 들어선 이 누구신고.
집주인을 찾자 하니
하늘이 내린 의젓한 군주 아니신가.
상량문에 하신 말씀
보기 쉽고 알기 쉽다.

포량의 동쪽에는 영원하도록
널리 사랑하라는 말씀이니 인(仁)이로다.
인(仁)자 뜻을 살펴보니

- 1) '구용(九容)'은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가를 이르는 지표이고, '구사(九思)'는 학문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擊蒙要訣(격몽요결)》에 나오는 율곡의 가르침임. '구용'은 ①足容重(족용중,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말라), ②手容恭(수용공, 손을 공손하게 하라), ③目容端(목용단, 눈을 단정하게 두어라), ④口容止(구용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⑤聲容靜(성용정, 말을 차분하고 조용히 하라), ⑥頭容直(두용직, 머리를 곧게 세워라), ⑦氣容肅(기용숙, 숨소리를 고르게 하라), ⑧立容德(입용덕, 서 있을 때 품위 있게 해라) ⑨色容莊(색용장, 얼굴 빛을 밝고 씩씩하게 하라)이고, '구사'는 ①視思明(시사명, 사물이나 현상은 명확히 보아야 한다.), ②聽思聰(청사충, 남의 말이나 세상사를 들을 적에는 총명하게 들어야 한다.), ③色思溫(색사온, 마음에 있는 것은 온화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④貌思恭(모사공, 용모는 단정히 해야 한다.), ⑤言思忠(언사충, 말은 진실하고, 실천 가능한 말만 가려서 해야 한다.) ⑥事思敬(사사경, 일은 신중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⑦疑思問(의사문, 의문이나 의심이 날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를 해야 한다.), ⑧忿思亂(염사란, 화나 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나 앓을까를 생각하여야 한다.) ⑨見得思義(견득사의, 이득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의로운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임.
- 2) 논어에서 금하는 네 가지. ①남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지 말라, ②나쁜 말을 듣지 말라, ③나쁜 말을 하지 말라, ④예절이 아닌 행동은 하지 말라
- 3) 종이 따위에 써서 벽에 붙이는 글이나 글씨.
- 4) '포량'은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四時中(사시중)의 봄이로다
拋樑西(포량서) 萬萬歲(만만세)의
行而宜之(행이의지) 謂義(위의)로다
義字(의자) 뜻을 살펴 보니
四端中(사단중)¹⁾에 羞惡(수오)로다
拋樑南(포량남) 萬萬歲(만만세)의
揖讓進退(읍양진퇴)²⁾ 爲禮(위례)로다
禮字(예자) 뜻을 살펴 보니
四時中(사시중)의 여름이라
拋樑北(포량북) 萬萬歲(만만세)의
聰明叡智(충명예지) 爲智(위지)로다
智字(지자) 뜻을 살펴 보니
四端中(사단중)의 是非(시비)로다
拋樑中(포량중) 萬萬歲(만만세)의
誠實無僞(성실무위) 信(신)이로다
信字(신자) 뜻을 살펴 보니
五行中(오행중)의 土(토)이로다
天道之常(천도지상) 人性綱(인성강)³⁾은
이 맞기 다시 없다

넋 집의 半畝丹田(반무단전)
이 밋이 心地(심지)로다
方塘(방당)⁴⁾으로 못을 파고
活水(활수)로 물을 띄여
信土(신토)로 防川(방천)하야
茅塞(모색)업시 修整後(수정후)의
九疇(구주)⁵⁾가치 正(정)흔 法理(법리)

네 계절 중 봄이로다.
포량의 서쪽에는 영원하도록
행하는 것에 마땅함이 있으니 의(義)로다.
의(義)자 뜻을 살펴보니
사단 중의 악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로다
포량의 남쪽에는 영원하도록
겸손하게 나아감과 물러나는 예의로다
예(禮)자 뜻을 살펴보니
네 계절 중 여름이로다.
포량의 북쪽에는 영원하도록
총명하고 지혜로우니 지(智)이로다.
지(智)자 뜻을 살펴보니
사단 중에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로다.
포량의 가운데는 영원하도록
성실하고 거짓없는 신(信)이로다.
신(信)자 뜻을 살펴보니
오행(五行) 중의 흙이로다.
천도의 떳떳함과 인성의 버리에는
이밖에 다시 없다.

내 집의 반 이랑의 작은 밭이 있었으니
이 밭이 마음이 내린 땅이로다.
네모나게 연못 파고
흐르는 물을 대어
믿음의 흙으로 여울을 막아
어둡고 답답한 기운 없게 수양한 후
구주같이 바른 법으로

1)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곧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룸. 자유지정(自有之情).

2) '읍양'은 허리를 반쯤 굽혀 절하는 것.

3) 元亨利貞 天道之常(원형이정 천도지상) 仁義禮智 人性之綱(인의예지 인성지강). 원·형·아·정은 천도의 떳떳함이고, 인·의·예·지는 인성의 버리이다.

4) 사람의 마음을 비유.

5) 홍범구주(洪範九疇). 중국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남겼다는 아홉 가지 정치 이념으로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과 육극(六極). ①오행: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 ②오사: 외모, 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③팔정: 양식 관리, 재정 주관, 제사 관리, 백성 교육, 범죄 단속, 손님 대접, 양병 및 백성의 땅 관리. ④오기: 해[歲]·달[月]·날[日]·별[辰]·역법(曆法)의 계산. ⑤황극: 임금이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 ⑥삼덕:

八卦體(팔괘체)¹⁾로 쓰여 너여
晝夜不輟(주야불철) 舌耕(설경)하야
衆善(중선)을 심어 두고
夜氣(야기)로 存養(존양)하야
므디 므디 萌動(맹동)홀 제
牛羊侵犯(우양침범) 制禦(제어)하며
斧斤剪伐(부근전벌) 禁止(금지)하고
기쁜 뿌리 북돋도와
여러 가지 썰더 가니
天道(천도)로 쏘시 피고
人道(인도)로 열미 먹자
如啄如磨(여탁여마) 익어가니
無價之寶(무가지보) 글 열미를
求得(구득)하면 君子(군자) 되고
放心(방심)하면 小人(소인)이라
이 맞시 뉘 맞신가
사람마닥 主人(주인)이라
그 열미 뉘 거신가
시머 두면 너 것시라
너 거스로 심거 두면
날날마닥 豐年(풍년)이라
惟精惟一(유정유일)²⁾ 聖賢心法(성현심법)
놓고 머다 어렵다고
우리갓치 어린 스람
못 흘네라 버려 두면
道(도)난 절로 멀어 가고
그른 일만 츠츠 하면
人面獸心(인면수심) 네 아닌가

팔괘로 그어 내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글을 읽어
모든 착한 일들을 심어두고
밤기운으로 보존하고 성장시켜
마디마디 싹틔울 제
소나 양의 침범을 막고
도끼로 자르고 베는 것을 금지하니,
깊은 뿌리 북돋우고
여러 가지 뺏어나서,
하늘의 도리로 꽃이 피어
사람의 도리로 열매 맺어
열심히 닦고 갈아 익어가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열매를
뜻 얻으면 군자 되고
방심하면 소인이라.
이 발이 뉘 발인가.
사람마다 주인이라.
그 열매 뉘 것인가.
심어두면 내 것이라.
내 것으로 심어두면
매일매일 풍년이라.
최선을 다하라는 성현의 마음이
높고 멀어 어렵다는
우리 같이 어리석은 사람
못할 것이라 버려두면,
도는 절로 멀어지고
그른 일만 찾아 하면
사람 얼굴 짐승 마음 네 아닌가.

정직·강극(剛克)·유극(柔克). ⑦계익: 복(卜)과 서(筮)의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 ⑧서징: 비·맑음·따뜻함·추움·바람 및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 ⑨오복과 육극: 오복은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말하고, 육극은 횡사요절·질병·근심·빈곤·악·악함을 지칭함.

1) 중국 상고 시대의 복희씨(伏羲氏)가 만들었다고 하는 여덟 가지 괘(卦). 양효(陽爻)와 음효(陰爻)로 이루어진 세 개의 효를 겹치어 자연 세계의 기본 요소인 여덟 가지의 상(相)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乾:☰, 하늘), 태(兌:☱, 못), 감(坎:☵, 물), 이(離:☲, 불), 진(震:☳, 우레), 손(巽:☴, 바람), 간(艮:☶, 산), 곤(坤:☷, 땅)을 말함.

2)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함.

익도롭고 不祥(불상)하다
우리 몸에 病(병)도 만타
喜怒哀樂(희노애락) 重病(중병)이라
禮義廉耻(예의염치) 文武湯(문무탕)¹⁾은
去惡清心(거악청심)
良藥(양약)이라
우리 門(문)에 盜賊(도적) 만타
佛老楊墨(불노양묵)²⁾ 大賊(대적)이라
志率氣率(지술기렬) 誠意誠心(성의성심)
防賊禦寇(방적어구) 良策(양책)이라

하기 쉽고 어려운 일
衣服飲食(의복음식) 節次(절차)로다
食無求飽(식무구포) 銘心(명심)하식
飲食之人(음식지인) 賤(천)하도다
衣服不衷(의복불충) 任意(임의)마식
災及其身(재급기신) 하리로다
惡衣惡食(오의오식) 슬어 물쇼
愧天忤人(괴천작인) 아니로다
乘肥馬(승비마)와 衣輕裘(의경구)는
意氣揚揚(의기양양) 하 다만은
도로혀 識者鄙(식자비)는
先師(선사)의 遺訓(유훈)이라
一簞食(일단식)와 一瓢飲(일표음)은
君子艱難(군자간난) 그러하네
三月不違(삼월불위)³⁾ 陋巷(누항)속의
不改基樂(불개기락) 하 시도다
擇不處仁(택불처인) 하 여 가도
衣之食之(의지식지) 염녀 마소
顏子(안자)의 밥⁴⁾을 먹고

애처롭고 불쌍하다.
우리 몸에 병도 많다.
희노애락 깊은 병이라.
예의 염치 알았던 옛 성인들은
악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약을 삼았구나.
우리 문에 도적 많다.
불가 노가 양주 묵가 큰 적이라.
뜻과 기를 다스리고 정성으로 뜻을 다해
도적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라.

하기 쉽고 어려운 일
옷을 입고 음식 먹는 절차로다.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을 명심하세.
음식을 밝히는 이 천하도다.
옷 입기에 정성 들이지 마세.
재앙이 그 몸에 미치리로다.
거친 옷과 거친 음식 꺼려 마소.
하늘에 부끄럽고 사람 부끄럽기 아니로다.
가벼운 가죽옷에 살찐 말을 타는 것이
의기가 양양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아는 것이 비루한 것임은
앞선 선인들이 남긴 가르침이라.
도시락의 밥 먹으며 표주박 물 마시는
군자의 가난함이 그러하네.
가난해도 인을 지키면
삶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시도다.
살만한 곳이 아니어도 어진 일만 가려하니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음 염려 마소.
안회처럼 밥을 먹고

1) 주(周)나라의 문(文)왕과 무(武)왕, 은나라의 탕(湯)왕.

2) '불가'는 불교, '노가'는 노자의 사상, '양가'는 양주(楊朱)의 사상.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로 "삶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은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하여, 즐겁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며 이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묵가'는 묵자(墨子)의 철학 유파로 겸애(박애주의)를 주장했고, 하늘 또는 상제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음.

3) 공자의 제자 안회(顏回)가 가난해도 석 달 동안 인(仁)을 어기지 않는다고 한 데서 온 말로, 즉 사욕(私欲)이 없음으로써 그 선심(善心)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었음을 말함.

4) 공자와 제자들이 굶주려 있을 때 안회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고, 몰래 솔의 뚜껑을 열고 밥 움큼을

曾子(증자)의 옷¹⁾ 니부면
蠻貊(만맥)²⁾의 居生(거생)흔달
이 아니 賢哲(현철)인가
盜跖(도적)의 밥을 먹고
陽虎(양호)³⁾의 옷 니부면
鄒魯(추로)⁴⁾의 世族(세족)인달
이 아니 狂狷(광견)인가

한 몸으로 ㅎ여 갈 일
그티도록 無數(무수)흔가
哀(애)흠다 父兮母兮(부혜모혜)
生我鞠我(생아국아) 구勞ㅎ시니
父生母育(부생모육) 莫大恩(막대은)을
萬(만)의 한 짚 못 갑홀너
恩惠(은혜)을 갑자ㅎ면
昊天罔極(호천망극) 다홀소냐
子女慈愛(자녀자애) 스람마닥
父母恩情(부모은정) 그러ㅎ다
身體髮膚(신체발부) 끼친 몸을
履薄臨深(이박임심)⁵⁾ 戰兢(전궁)ㅎ야
出入場(출입장)과 言語上(언어상)의
操心(조심)ㅎ면 孝子(효자)로다
손 한 번 놀릴 제와
발 한 번 거러갈 제
흔 쎄라도 잊지 말면
子息道理(자식도리) 常綱(상강)⁶⁾이라

증자처럼 옷 입으면
오랑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아니 어질고 사리에 밝은가.
도적의 밥을 먹고
양호의 옷 입으면
공자 맹자의 집안이라도
이 아니 뜻만 커서 고집스런 사람인가.

한 몸으로 해야 할 일
그토록 무수한가.
슬프구나, 아버지여 어머니여.
낳으시고 기르시며 고생하시니
낳으시고 기르시는 큰 은혜를
만의 하나도 못 갚겠네.
은혜를 갚자 하면
하늘같이 넓고 큰 은혜 어찌 갚을 소냐.
자녀 자애 사람마다
부모 은정 그러하다.
몸과 머리털과 피부에 끼친 몸을
연못가 살얼음판 밟듯 매우 조심스럽게
들고 나며 말하는 데
조심하면 효자로다.
손 한 번 놀릴 제와
발 한 번 걸어갈 제
한 때라도 잊지 않으면
자식 도리를 다함이로다.

집어 먹자, 공자는 안회가 스스로 뉘우치게 하려고 이 밥으로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자고 하자. 안회는 그 밥은 흙덩이가 떨어진 밥이기에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자신이 이미 먹었다고 답하여, 공자는 잠시 안회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게 함. 공자는 이에 대해 제자들에게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고 머리로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며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가르침.

- 1) 증자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노나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노나라 임금인 증자에게 한 고을을 떼어 주려 하였지만, 증자는 남의 것을 받는 자는 항상 남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남에게 물건을 주는 자는 항상 남에게 교만하게 마련이라고 하며 임금이 나에게 땅을 주기만 하고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는가 하며 땅을 받지 않았음.
- 2) 중국인들이 그들의 남쪽과 북쪽에 살던 종족을 이르던 말
- 3) 중국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와 얼굴이 비슷하였다고 함.
- 4) 유학의 근원지. 곧 공자의 나라 노와 맹자의 나라 추를 합친 말.
- 5) 깊은 연못가에 서고 살얼음판을 밟듯이 매우 조심스러움
- 6) 항상 지켜야 할 도리.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놓은 줄로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뜻함.

百行萬善(백행만선) 本源功夫(본원공부)
孝之一字(효자일자) 뿐이로다
臣下(신하)되고 不忠(불충)하면
殉節死義(순절사의) 속절업다
戰陳無勇(전진무용) 험난 거시
孝誠(효성)업는 탓시로다

夫婦間(부부간)의 無別(무별)하면
家道敗亡(가도패망) 잠깐이라
覆宗絕嗣(복종절사) 험너거시
孝誠(효성)잇고 그러할가
얼운 兒孫(아해) 次例(차례) 업서
傷風敗俗(미풍양속) 험여가면
無禮亂法(무례난법) 방蕩(방탕)할제
孝誠(효성)잇다 일을손가
朋友間(붕우간)의 信(신)이 업서
간디마닥 取笑(취소)하면
行不篤敬(행불독경) 저 人事(인사)야
孝誠一段(효성일단) 잇서든가

원갓 道理(도리) 알까하면
글을 넓어 窮究(궁구)하고
小學(소학)¹⁾으로 몬져 들러
幼儀(유의)²⁾을 비와 두고
八九歲(팔구세) 되어 갈 제
灑掃應對(쇄소응대)³⁾ 아러셔라
大學或問(대학혹문)⁴⁾ 次次(차차)닐거
三綱領(삼강령) 八條目(팔조목)을
仔細(자세)이 請求(청구)하야
八德門(팔덕문)⁵⁾ 들어가서

모든 착한 행실 근원의 공부에는
효도 한 글자 뿐이로다.
신하 되고 불충하면
죽자해도 속절없다.
전쟁에서 진군할 때 용감하지 않는 것은
효성 없는 탓이로다.

부부간에 분별함이 없으면
집안의 도 무너지기 잠깐이라.
종묘 사직 무너지고 후사가 끊기는 것
효성이 있는데도 그러할까.
어른 아이 간에 차별이 없어
미풍양속 무너지면
예의 없고 법이 어지러워 방탕해지니
효성이 있다면은 이럴 수 있을 것인가.
벗들 간에 믿음이 없어
간곳마다 웃음거리 되면
행실이 공손하지 못한 저 사람아
효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든가.

온갓 도리 알려 하면
글을 읽어 깊이 연구하고
소학을 먼저 읽어
유의를 배워 두고
팔구 세 되어 갈 제
부지런히 응대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대학은 차차 읽어
세 강령과 여덟 조목을
자세히 익혀서
팔덕문에 들어가서

1) 중국 송나라의 유자징(劉子澄)이 주희의 가르침으로 지은 초학자들의 수양서.

2) 나이 어린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

3) 물을 뿌려 쓸고 응대한다는 뜻으로,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웃어른의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상대함을 이르는 말.

4)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명명덕(明明德)·지지선(止至善)·신민(新民)의 세 강령을 세우고, 그에 이르는 평천하(平天下)·치국(治國)·제가(齊家)·수신(修身)·정심(正心)·성의(誠意)·치지(致知)·격물(格物)의 여덟 조목의 수양 순서를 들어서 해설하였음.

5)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충(忠), 신(信), 효(孝), 제(悌)의 여덟 가지 덕(德).

論語(논어)¹⁾에 敦仁博義(돈인박의)
融會貫通(융회관통) 하여 두고
孟子(맹자)²⁾의 遏欲存理(알욕존리)
熟讀詳味(숙독상미) 擴充(확충)하고
中庸單卷(중용단권) 子思(자사)³⁾ 말삼
天地之道(천지지도) 人道(인도)로다
性情邪正(성정사정) 善惡褒戒(선악포계)
葩經(파경)⁴⁾ 일거 講磨(강마)하고
그 卽次(즉차)로 禮經(예경)⁵⁾ 비와
詳玩精思(상완정사) 하여 보소
天理節文(천리절문) 儀則度數(의칙도수)⁶⁾
句句字字(구구자자) 消詳(소상)하다
尙書十卷(상서십권)⁷⁾ 上下卷(상하권)은
學而習之(학이습지) 즐겁도다
二帝三王(이제삼왕)⁸⁾ 大經大法(대경대법)
載在方策(재재방책) 明鑑(명감)이라
周易經傳(주역경전)⁹⁾ 講習(강습)하니
天尊地卑(천존지비) 理氣(이기)로다
吉凶存亡(길흉존망)
進退節(진퇴절)과
動靜消長(동정소장)
陰陽卦(음양괘)을
微辭奧旨(징사오지) 玩味(완미)하야

인(仁)을 두텁게 하고 널리 의를 행하여
자세히 이해하여 관통하는 이치를 깨닫고
맹자의 욕심 막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
깊이 읽고 상세하게 음미하여 뜻을 알고
중용에 실린 자사의 말삼
하늘과 땅의 도리가 곧 사람의 도리로다.
성품의 옳고 그름, 선악의 칭찬과 경계
시경 읽어 열심히 갈고 닦은 후에
그 다음 차례로 예기 배워
자세히 음미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소,
천리 절문 의칙 도수
글자마다 자세하다
서경 열 권 상하 경전은
배워 익히니 즐겁도다.
두 황제와 세 임금의 큰 경전과 큰 법이
책마다 실렸으니 뛰어난 본보기라.
주역 경전 열심히 익히니
하늘 높이고 땅 낮추는 이치와 기운이로다.
길흉이 존속하고 멸망하여
나아가거나 물러나고
움직이고 멈춰지며, 줄어가고 늘어감이
음양의 괘에 나타났으니
징조의 깊은 뜻과 가르침을 음미하여

1)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것으로, 공자 사상의 중심이 되는 효제(孝悌)와 충서(忠恕) 및 '인(仁)'의 도(道)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2)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맹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등을 기술하였음.

3) 유학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중용의 덕과 인간의 본성인 성(性)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4) 시경(詩經).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로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으로 주나라 초부터 춘추시대까지의 시 311편을 풍(風)·아(雅)·송(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음.

5) 예기(禮記).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로 의례의 해설 및 음악·정치·학문에 걸쳐 예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6) '천리'는 하늘의 바른 이치. '절문'은 예절에 관한 규정. '의칙'은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 '도수'는 정해진 제도.

7) 서경(書經). 유학(儒學)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요임금과 순임금 때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정사(政事)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여 편찬하였음.

8) '이제'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 '삼왕'은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상(商)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9)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 만상(萬象)을 음양 이원으로써 설명하여 그 으뜸을 태극이라 하였고 거기서 64괘를 만들었으며, 이에 맞추어 철학·윤리·정치상의 해석을 덧붙임.

부지런니 通達(통달)하고
賞善罰惡(상선벌악)
聖人心法(성인심법)
春秋書(춘추서)¹⁾을 博覽(박람)하고
朱子大全(주자대전²⁾) 性理說(성리설)과
家禮心經(가례심경) 近思錄(근사록)³⁾과
二程全書(이정전서)⁴⁾ 卷卷書(권권서)를
常常(상상)의 間斷(간단) 업시
疑心(의심)업시 通達(통달)하니
日用工夫(일용공부) 事業(사업)이라
史略痛鑑(사략통감) 綱目痛鑑(강목통감)⁵⁾
博覽(박람)으로 披閱(피열)하고
老莊雜類(노장잡류) 不正書(부정서)는
暫時(잠시)라도 着眼(간안)마소
居喪(거상)하야 일근 글은
喪禮儀禮(상례의례)⁶⁾ 그뿐이라
葬前(장전)에 葬禮(장례) 일거
送終之節(송별지절) 向方(향방) 알고
葬後(장후)의 祭禮(제례) 일거
奠酌之禮(전작지례) 茫昧(망매)마소

어화 넋일이야
燈下不明(등하불명) 여기로다
말하는 저 南星(남성)⁷⁾이
꼬리엿는 東京(동경)⁸⁾이오
눈 못보는 저 소경아
저 죽을날 모로면서

부지런히 통달하고
선행은 상을 주고 악행은 벌을 주는
성인들이 마음 쓰는 법인
춘추를 널리 읽고
주자대전의 성리학에 대한 학설과
주자가례와 근사록과
정이, 정호 두 형제의 모든 책을
항상 그치거나 끊어짐이 없이
의심 없이 통달하니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일이구나.
사략통감, 강목통감
널리 감상하여 골라 읽고
노자, 장자 잡스럽고 바르지 못한 책은
잠시라도 보지 마소.
상을 당했을 때 읽은 글은
의례에 있는 상례 그뿐이라.
장사 전에 장례에 대한 글을 읽어
장례 지내는 온갖 절차의 방향 알고
장례 후에 제례에 대한 글을 읽어
술 올리는 절차를 혼동하지 마소.

어화, 내 일이야.
등잔 밑이 오히려 밝지 않으니 여기로다.
말하는 저 남성은
꼬리 엿는 동경이오.
눈 못보는 저 소경아.
제 죽을 날 모르면서

- 1)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 동안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
- 2)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희(朱熹)의 글을 모아 편찬한 문집.
- 3) '가례심경'은 주자가례(朱子家禮)로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희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책이고 '근사록'은 주희와 여조겸(呂祖謙)이 공동으로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
- 4) 송나라의 성리학자 정호(程顥)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을 모은 책.
- 5) '사략통감'은 중국 송나라 때의 강지(江贄)가 《자치통감》을 요약한 책. '강목통감'은 주희가 《자치통감》을 강(綱)과 목(目)으로 나누어 편찬한 책.
- 6) 중국 경서(經書)의 하나. 관혼상제를 비롯하여 중국 고대 사회의 사회적 의식을 자세히 기록한 것
- 7) 남성이(?)
- 8) 경주 지역의 토종개인 동경이(?)

무슨 일 아노라고
남의 身勢(신세) 가려주며
全身不仁(전신불인) 안진방이느
坐地不遷(생지불천) 흐면서도
넌만사라 흐는 말이
千里(천리)길이 갓갑다네
나는 그리 못흐면서
이런 글이 罪(죄)만흐다
日後(일후)의 聖人(성인) 만나
狂夫之言(광부지언)¹⁾ 擇(택)흐올가
天性我才(천성아재) 쓸디업서
世上功名(세상공명) 흐즉흐고
人間富貴(인간부귀) 절노두고
物外烟霞(물외연하) 興(흥)을 겨워
寂寂松間(적적송간)의 기짓는디
寥寥雲壑(요요운학)의 거뉘오리
有水有山(유수유산) 흐온곳익
仁義禮智(인의예지) 흐오리랴

무슨 일을 안다고
남의 신세 가르쳐주며
몸 전체가 불편한 앓은뱅이는
땅에 앉아 걷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 하는 말이
천 리 길이 가깝다고 하네
나는 그리 못하면서
이런 글을 쓰니 죄가 많다.
훗날에 성인을 만난다면
미친 사람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늘이 준 내 재주 쓸 곳 없고
세상에서 얻은 공명과 작별하고
인간 부귀 절로 두니
들판의 안개 흥겹기만 하고
적적한 소나무 사이로 개 짖는데
쓸쓸한 구름과 골짜기를 거닐으니
물 흐르고 산 있는 곳에서
인의예지 행하리라.

1) 작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